

# ECONET W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Vol.013 / April 5, 2006



"에코넷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에코넷의 5개국어 축하메시지가 쓰여진 티셔츠를 입고 미국법인 에코네시안들이 기쁨을 함께했다.

"Congratulations on the 30<sup>th</sup> anniversary of ECONET!"

Wearing T-shirts with the congratulatory message written in five different languages, ECONETIANs at US subsidiaries celebrated the anniversary together.



발행인 이병훈 / 발행처 (주)남양 / 편집기획 (주)남양 에코넷기업본부 / 편집 오경아 / 편집·디자인 Intercube Design / 인쇄 정광인쇄(주)  
Publisher Bill Lee / Published by Namyang Company / Editing and planning by ECONET Corporate Center, Namyang Company / Editor Kyeongah Oh  
Editing & design by Intercube Design / Printed by Jeonggwang Printing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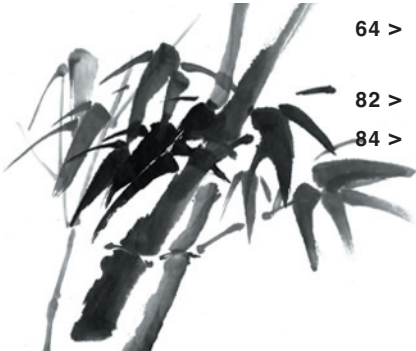
- 30주년 특집
- 02 > 당부하고 싶은말 고 이연호 회장님
- 04 > 永遠한 自然의 사람과 기업 정희경 이사장
- 08 > 30년전 창업스토리 (주)남양 이시찬 상무
- 12 > 30명의 축하메세지
- 22 > 에코네시안의 꿈
- 26 > 연혁으로 보는 ECONET 30년

- ECONET Special
- 30 > 글로벌 비즈니스 제품 개발은 우리에게 맡겨라, 신제품개발 소위원회 파이팅
- 34 > 스페셜 이슈 대도약의 발판 ECONET 신사옥
- 36 > 스페셜 이슈 사우회! 알고 보면 돈 돼요
- 38 > 테마캠페인 서번트 리더십 테마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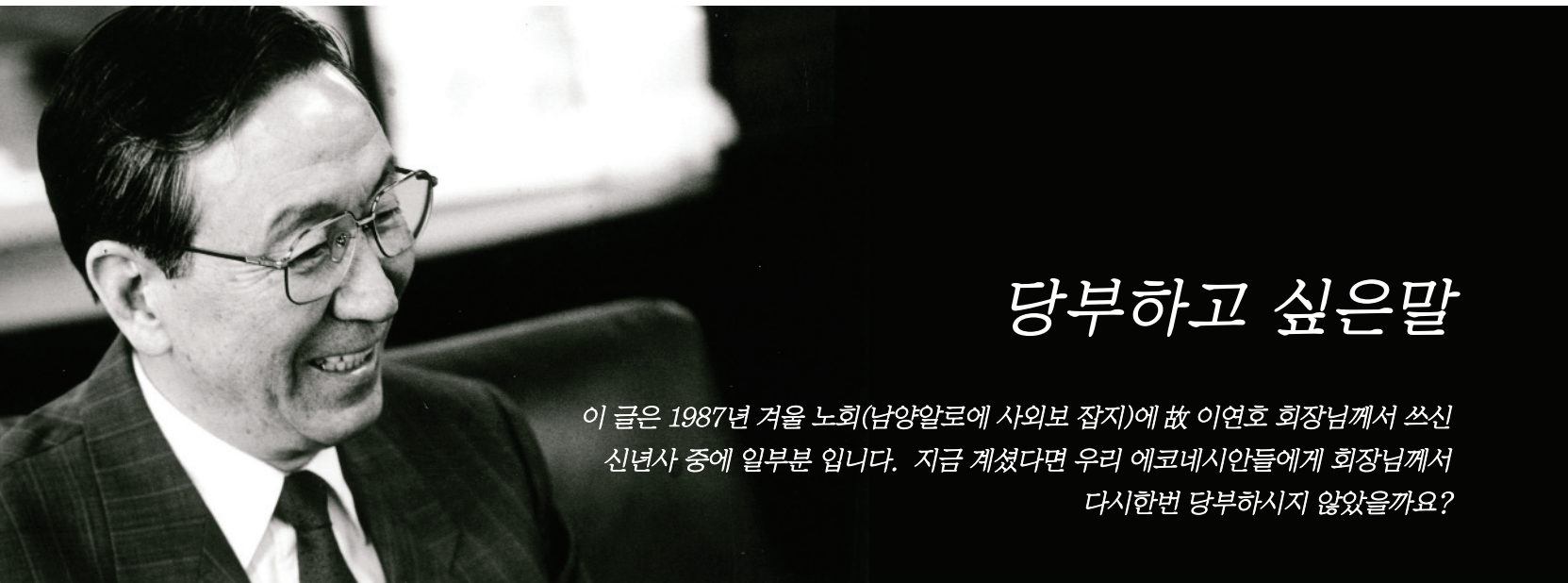
- ECONETIAN
- 42 > 고고 우리부서 유니젠 러시아 총무팀
- 44 > 우리집으로의 초대 유니베라 웨스트 홀딩스 밥 풀턴
- 48 > 칭찬 릴레이 여덟번째 주인공 (주)남양알로에 경영지원팀 곽은정 대리
- 52 > 칭찬 릴레이 여섯번째 주인공 미국 유니젠 메이 홍
- 56 > 4월에 내린 비가 5월의 꽃으로 돌아오다.

- Culture & Life
- 58 > 가족전통 유니베라 웨스트 홀딩스 데렉홀 사장
- 60 > 명소소개 병천순대 맛보러 오세요!
- 62 > 헬씨라이프 균형잡힌 몸매 만들기엔 등산이 최고

- Info
- 64 > 社告
- 64 > ECONET News Network • ECONET 자회사 소식  
• ECONETIAN 신입사원 소개 • ECONETIAN 경조사 안내 • ECONETIAN 생일자 소개
- 82 > 4월호 퀴즈 & 지난호 퀴즈 당첨자 안내
- 84 > 에코넷웨이에 바란다



- 30th Anniversary Features
- 03 > A Few Simple Requests By the late Chairman Yunho Lee
- 06 > People and Company of Everlasting Nature By Helen Chung
- 10 > The Company's Founding 30 Years Ago By Sichan Lee, Namyang
- 12 > Congratulatory Messages from 30 People
- 24 > The Dream of an ECONETIAN
- 28 > The 30-Year History of ECONET
- ECONET Special
- 32 > Global Business Leave Product Development to Us-New Product Development Subcommitte
- 35 > Special Issue ECONET New Headquarters
- 40 > Theme Campaign Servant Leadership Theme Column
- ECONETIAN
- 43 > All About Our Team Unigen Russia General Affairs Team
- 46 > Welcome to My Home Barb Fulton / ECONET, Inc.
- 50 > A Relay of Praises Eighth Runner Eunjeong Kwak, Assistant Manager, Management Support Team, Namyang Aloe
- 54 > A Relay of Praises Sixth Runner Mei Hong, Unigen USA
- 57 > April Showers Bring May Flowers.
- Culture & Life
- 59 > Family Traditions Derek Hall / ECONET, Inc.
- 61 > Famous Place An Invitation to Byeongcheon to Sample Sundae!
- 63 > Healthy life Getting into Shape? Let's go Hiking!
- Info
- 64 > Company Announcement
- 64 > ECONET News Network • ECONET Subsidiary News • ECONETIAN New Hires  
• ECONETIAN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 ECONETIAN Birthdays
- 82 > April Quiz and the Winners of the February Contest
- 84 > Story Suggestions for ECONET Way



## 당부하고 싶은말

이 글은 1987년 겨울 노회(남양알로에 사외보 잡지)에故 이연호 회장님께서 쓰신  
신년사 중에 일부분입니다. 지금 계셨다면 우리 에코네시안들에게 회장님께서  
다시한번 당부하시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남양알로에농산 전사원에게 당부하고 싶은말은 첫째, 우리는 남양알로에농산 사원이된 공지와 자부심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거듭 강조되는 말이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제일먼저 시작된 알로에 기업의 선두주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다.

이 세상 수많은 직업중 유용하지 않은 직업이 있을까마는 그 중에서도 인체의 건강을 관장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생리 작용을 하는 인체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정신과 지식, 또한 감정을 담는 그릇의 구실을 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인체의 건강을 위해 다른사람이 시도해 보지못한 새로운 물질 알로에를 공급함으로써 공헌을 쌓아가고 있는 첨단기업의 일원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왕성한 개척정신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개척이라는 말은 남이 흔하게 가지 않는 길을 그 어떤 확신을 갖고 어려움을 무릅쓰며 헤쳐나간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들여 쌓아올린 기반을 발판으로 삼아 새로이 바르는 알로에 스킨케어 “아르몽”과 알로에 효소제품을 개발하여 출하 할 것을 준비중이다. 이러한 신제품의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고 공백지역의 판매조직에도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흔히들 쓰여지는 말로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 하듯이 우리제품이 한병이라도 더 나가면 어김없이 한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건강을 증진시키게 되는 것이 확실한 마당에서 우리가 게으름을 피울수는 없는 것이다.

많은 하고싶은 말중에 위와 같은 두 가지만 올해 우리 전사원의 머리에 새겨 힘차게 전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 알로에 애용가 여러분과 협력업체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양알로에농산 전사원과 그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신년사를 끝마치려 합니다. **ECONET**  
since 1976

## A Few Simple Requests

*The following is an excerpt from a New Year's Message from the late Chairman Yunho Lee for Nohoe (the Namyang Aloe company newsletter) in the winter of 1987. If he were still around, wouldn't he have once again asked the same of ECONETIANs?*



I'd like to ask a few things of the entire staff of Namyang Aloe Agricultural Industrial Company. First, we should firmly maintain our pride and dignity as the staff of Namyang Aloe Agricultural Industrial Company. Although this is repeated again and again, we are a leader as the first aloe company founded in Korea, and we should take pride in being a part of it.

There are numerous kinds of jobs in the world and every job must be useful. Nevertheless, no one will deny that looking after people's health is the most important job of all. It is important because it involves not only taking care of the human body and its physiological functions, but also looking after the mind, knowledg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hich are most valuable to humankind. We feel proud because we are members of a company that contributes to the health of the human body by supplying aloe, a new substance that no other company has attempted to utilize.

Second, we should have an enthusiastic pioneering spirit. The word "pioneer" may mean conquering a road that is not usually taken, and

with a certain confidence despite the challenges one may face. Based on the foundation we have undertaken great efforts to build so far, we are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nd preparing to launch Armont, a new skincare product, and an aloe enzyme product.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s such as these will be continuously and actively pursued and sales organizations will accelerate expanding their territory.

People often say, "The more, the merrier." We cannot afford to be idle when it is certain that the more of our products we sell, even a single bottle more, the more people will be relieved of pain and the more their health will be improved.

Among the many things I would like to say, I sincerely ask the entire staff to keep the two above-mentioned requests in mind and move forward energetically this year. Last but not least, I'd like to conclude my new year's message by wishing the greatest health and happiness to every aloe user, every agent, every Namyang Aloe staff member and their familie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ECONET**  
since 1976



## 永遠한 自然의 사람과 기업



글 - 학교법인 청강학원 이사장 정희경

남양알로에 창업 30주년을 맞는다니 세월의 빠른 흐름을 새삼 느끼면서 이날에 꼭 우리와 함께 했어야 할 사람이 이미 없음에 서운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세상에서 가장 보람을 가지고 키웠던 남양알로에의 눈부신 성장을 지켜보면서 하늘나라에서도 그분 특유한 미소를 짓고 축하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분이 떠나신 1996년 이후, 會社 임직원의 꿈의 나눔과 단합과 열정이 오늘의 세계적인 기업 남양알로에를 길러냈다는 것을 믿기에 진심으로 치하하고 격려하고 싶다.

故 이연호 회장의 젊은날부터의 비전은 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서의 자연과 생명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그분이 오랜 사업상 부진으로 고소득산업인 동제련회사를 운영했던 몇해(60년대말부터 70년대초까지)를 제외하고는 그분의 사업은 늘 자연과 인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업종에만 종사해왔던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동제련회사(東洋非鐵 株式會社)를 경영하면서도 공장의 넓은 뜰 한편에는 각종 식물을 기르는 온실을 가꾸고 있었고 결국 알로에와의 만남도 그 온실에서 시작되었다. 이 몇해전(1972년) 모처럼 사업이 원활해져서 얻은 재화로 가장 먼저 하신 일도 포천에 있는 수려한 임야를 구입해서 나무 가꾸기를 시작한 일이었다. 잡목으로 어수선했던 10여만평의 임야에 몇해에 걸쳐 어린 묘목을 심고 가꾸면서 그분은 얼마나 삶의 기쁨을 그리고 생명의 성장에 대한 감사를 느꼈는지 모른다.

또 많은 친구들과 그 포천농원에서 휴식을 얻으며 서로에 대한 우정을 키웠던 것도 측량할 수 없는 축복으로 여겼다. 스스로 심은 나무가 명실공이 아름답리 나무가 되었을 때 그 점잖은 분이 나무를 품에 앉고 기뻐하던 천진한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걸 대통령이 이리 키울수있나? 재벌이 이리 키울수 있나? 참 하나님의 손길은 엄청난기라!” 하며 즐거워 했다.

비철제련 사업으로 건강을 해친 그분이 알로에를 만나고 알로에 산업에 몰입하게 된 것도 결국 젊었을 때부터 가슴에 품었던 생명, 사랑, 인간을 둘러싼 자

然 위주의 사업에 대한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리 배려한 일이었다고 나는 믿고 있다.

한번 해를 입은 건강은 완쾌되지 못했지만 그분이 알로에와 만난 20년동안의 삶은 그야말로 “알로에 사랑”으로 꽉 차 있었음을 알수 있다. 그래서 알로에도 그분에게 어지간히 혜택을 주는 일로 보답하듯, 알로에로 생명을 연장했고 지병을 가지고도 한번도 좌절하는 일 없이 알로에산업에 매진했다. 알로에 밑에 앉아 어찌할수 없는 사랑을 감추지 못하는 그분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박사학위 과정에 열정을 쏟던 이병훈 社長이 1988년에 느닷없이 아버지 사업에 도움 되겠다고 會社에 뛰어 들었을 때 우리內外는 무척 반대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 역시 自然의 혜택을 인류에게라는 비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하신 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성장기의 남양알로에에서 아버지의 사업 훈련을 6년동안 받지 않았다면 1996년 아버지가 떠난 후 얼마나 황망했을까 싶다.

남양알로에는 그래서 영원히 자연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기업이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은혜롭게 자라날 것을 나는 믿고 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건강과 아름다움과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게 해줄 것도 믿는다. **ECONET**  
since 1976

다시 한번 창사 30주년을 축하한다.

## People and Company of Everlasting Nature



Written by Helen Chung, Chairperson of the Chungkang Foundation

*The 30<sup>th</sup>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Namyang Aloe reminds me how swift the flight of time is, but then I cannot help but regret that one person who should be with us today is no longer around. Nonetheless, I am certain that he is closely observing the remarkable growth of Namyang Aloe, which he had nurtured with a great sense of fulfillment, and congratulating us with his unique smile from high up in heaven. I would like to sincerely congratulate and praise all of you because I believe the growth of Namyang Aloe, a global company today, was made possible by the shared dreams, solidarity and enthusiasm of ECONETIANs since his passing in 1996.*

The 30<sup>th</sup>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Namyang Aloe reminds me how swift the flight of time is, but then I cannot help but regret that one person who should be with us today is no longer around. Nonetheless, I am certain that he is closely observing the remarkable growth of Namyang Aloe, which he had nurtured with a great sense of fulfillment, and congratulating us with his unique smile from high up in heaven. I would like to sincerely congratulate and praise all of you because I believe the growth of Namyang Aloe, a global company today, was made possible by the shared dreams, solidarity and enthusiasm of ECONETIANs since his passing in 1996.

Even in his youth, the late Chairman Yunho Lee's vision has always centered on nature and life - God's order of creation. Except for some years (from the late '60s to the early '90s) when he was engaged in the lucrative copper smelting business to overcome the financial difficulties resulting from his earlier business, he has always engaged in ventures that value nature and humankind. Even when he operated a copper-smelting company (Dongyang Non-Ferrous Metal Co., Ltd.), he built a greenhouse in one corner of the factory's spacious courtyard to grow various plants. After all, his relationship with aloe also began in that greenhouse. When his business was successful and he gained some assets in 1972, the first thing he did was purchase scenic forestland in Pocheon and grow trees. While planting saplings on the 100,000-pyeong plot covered with neglected shrubs, he was tremendously grateful and filled with the joy of living and the growth of new life. In addition, he strongly believed in sharing restful time with his numerous friends at the plantation and promoting friendship among them was an immeasurable blessing. He was usually so dignified, but I still vividly remember how excited he would be as he hugged a tree that was a mere sapling when he planted it with his

own hands but that had fully grown and become too big for him to hold in his arms. He would rejoice and say, "Who could grow a tree like this? A president? A business mogul? No. The caring hands of God are truly incredible!" I believe he came across aloe when his health suffered from his involvement in the copper-smelting business and he devoted himself to the aloe industry because of Heaven's will for him to realize his dream from his youth? a nature-oriented business that involves life, love and mankind.

Although he never fully recovered his health after he fell ill, I know that the 20 years of his life he shared with aloe were truly filled with his love for aloe. That is why as though aloe was returning his love, he was able to extend his life with aloe and advance the aloe industry without any setbacks despite his chronic disease. The image of him sitting beside an aloe and being too excited to hide his overwhelming love is still fresh in my mind.

When Bill Lee, who was working hard toward his doctoral degree, suddenly decided to join the company and assist his father in 1988, my husband and I were strongly against it. In hindsight, however, I believe it was also Heaven's will to sustain the vision of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If Bill Lee had not been trained under his father's guidance in nurturing Namyang Aloe for six years, he surely would have been extremely frustrated after his father passed away in 1996.

I firmly believe Namyang Aloe is a company by and for those with an enduring love for nature and that it will grow to be prosperous and beneficial, and thus lead more people to appreciate health, beauty and thankfulness.

I would like to once again congratulate you on the occasion of the 30<sup>th</sup> anniversary of Namyang Aloe's founding. **ECONET**

since 1976



## 30년전 창업스토리

“알로에에 대한 내 마음은 마치 사랑에 눈뜬 청춘 남녀의 연애감정과도 비슷했다. 알로에라는 식물을 통해 인간의 고통이 덜어지고 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뭔가 새로 시작해야겠다는 주체할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글 - (주)남양 생산본부 이시찬 상무



내가 회장님을 처음 뵈는 것은 시골에서 갓 상경했을 때였다. 우연히 회장님의 친구분의 소개를 통해 비철 용해공장에 입사하게 되었다. 당시 인천시 북구 효성동에 동양비철을 운영하고 계셨던 회장님께서 비철 공장 옆 조그마한 땅에 손수 원예농사를 짓고 대나무 비닐하우스 한구석에는 알로에를 관상용으로 키우셨다. 회장님의 자연 사랑은 남다른 데가 많으셨는데 90년대에 청강대를 설립하실 때부터 부지에 자

라던 나무를 그냥 베지 않으시고 다른 곳에 옮겼다가 청강대와 사옥에 나누어 심도록 하신 것은 감동적인 일화로 남아있다. 자연을 무척이나 사랑하셨던 회장님은 사람에 대한 사랑도 못지 않으신 분이였다. 나는 그런 회장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사람 같다.

75년 봄에 회장님께서 직접 내 자취방에 찾아오신 일이 있다. 지금도 그때의 일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내가 급성간염으로 며칠째 회사출근을 못하고 동네 병원에 다니며 치료할 때였다.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신 회장님께서 “너 이놈 얼굴보니 도저히 안되겠다.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어.” 하시며 내 손을 끌고 직접 병원에 데리고 가셨다. 몸이 아픈 와중에 객지에서 이런 따듯함을 겪으니 눈물이 왈칵 나올 것만 같았다. 그 당시 비철공장이 휴업에 들어갈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고 회장님께서도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였는데 나는 회장님과 한동안 병원을 같이 다녔다.

나는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건강해져 군에 입대를 했지만, 회장님 건강은 더욱 나빠졌다. 급기야 병원 주치의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한부의 삶을 통보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온갖 약을 찾던 중 일본의 한 월간 잡지로부터 알로에를 접하시게 되어 회장님께서 이 때부터 식이요법과 더불어 알로에 생초를 복용하셨다.

얼마 후, 회장님께 기적이 찾아왔다. 딱딱하게 굳어 가던 간이 다시 살아난 것이었다. 1년이 지나 찾은 병원의 담당 의사도 의아해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였다.

이토록 혹독한 고난을 통해 만난 알로에가 회장님께 새로운 길을 열어 주었다. 알로에의 효능에 깊은 감명을 받으신 회장님께서서는 보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효과를 함께 누리기를 바라셨다. 이 때의 감동을 회장님께서서는 “알로에에 대한 내 마음은 마치 사랑에 눈뜬 청춘 남녀의 연애감정과도 비슷했다. 알로에라는 식물을 통해 인간의 고통이 덜어지고 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뭔가 새로 시작해야겠다는 주체할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1976년 비철금속 사업장옆에 조그만 알로에 비닐하우스의 시작이 국내 최초로 알로에의 국내 시험재배에 성공으로 이어지고 연구 실험생산을 거쳐 ‘남양 알로에 농산’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현재의 남양알로에, 에코넛의 시초이다.

남양알로에의 창업 스토리는 우연히 알게된 알로에를 사업화하여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회장님께서 애초에 식물을 사랑하셨던 것이나,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은 에코넛이 자라날 토양이었고, 회장님의 건강이 악화되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찾으시던 약초 가운데 알로에를 만난 것은 씨앗이 되었던 것이다. 올바른 씨앗이 비옥한 토양을 만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가꿔갈 터전 에코넛이 된 것이다.

나는 멀리 하늘 나라에 계실 이연호 회장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이렇게 발전해 가는 모습, 이 안에서 우리들 살아가는 모습에 지으실 환한 미소가 내 마음에 그려진다. **ECONET**  
since 1976

회장님 감사합니다.



## The Company's Founding 30 Years Ago

*“My feelings for aloe were similar to the romance of a young couple that has fallen in love. Realizing that people’s suffering can be eased and their health can be improved through a plant known as aloe, I was compelled by a drive to do something new.”*

Written by Sichan Lee, Production Headquarters, Namyang

It was shortly after I had moved from my hometown to Seoul that I first met the late Chairman Lee. By chance, I had gotten a job at a copper smelting plant through his friend’s referral. At that time, the late chairman operated Dongyang Metal in Hyoseong-dong, Buk-gu, Incheon. On a small plot beside the factory, he cultivated plants with his own hands. He also grew aloe as an ornamental plant in one corner of a bamboo greenhouse. His love for nature was extraordinary. When he founded Cheongkang College in the '90s, he ordered that the trees

growing on the site were not to be cut down. Instead, he instructed the workers to temporarily relocate the trees and then replant them at Cheongkang College and at the company headquarters. This is still remembered as a very poignant tale.

The late chairman cared for nature very much, but his love for people was at least as great. I think I am among the greatest recipients of his love.

One day in the spring of 1975, the late chairman

came to my home, a small shabby room rented for myself, to look for me. I still vividly remember that day. I was suffering from acute hepatitis and was unable to work for several days. I was receiving treatment at a small clinic in my neighborhood. Bursting into my room, he said, “You look awful. You shouldn’t be here like this. Let’s go to a large hospital and get you proper treatment.” He grabbed my hand and personally took me to a hospital. I almost broke into tears at the warm-heartedness he showed me when I was sick and all alone, away from my family. At that time, business was so poor that the plant had to suspend its operations and the late chairman himself was in bad shape. The late chairman and I both needed treatment for some time.

Thanks to his care and love, I recovered and was able to join the army to fulfill my military duty. However, his health worsened. Finally, his doctor told him he had only six months to live. While in search of various cures, he learned of aloe through a Japanese monthly magazine. From then on, he began taking fresh aloe in addition to following a strict regimen.

Some time later, he experienced a miracle. His hardened liver began to show signs of improvement. When he went to his doctor one year later, the doctor was also surprised and amazed.

The aloe, which he encountered through such painful hardship, opened a new path for him. Deeply impressed by the efficacy of aloe, the late

chairman wanted more people to benefit from aloe. His excitement is summed up well in the following remark: “My feelings for aloe were similar to the romance of a young couple that has fallen in love. Realizing that people’s suffering can be eased and their health can be improved through a plant known as aloe, I was compelled by a drive to do something new.”

A small aloe greenhouse set up near a copper smelting plant in 1976 led to the first successful experimental cultivation of aloe in Korea. Through research and experimental production, Namyang Aloe Agricultural Industrial Company was founded. This is the origin of Namyang Aloe and ECONET.

The founding story of Namyang Aloe is not about being successful in an aloe business that one stumbled upon by accident. The late chairman’s care for plants and for people was fertile ground that allowed ECONET to grow. When his health worsened, he sought a medicinal plant with the desperation of a drowning man grasping at straws. Then, he met aloe - a seed. The right seed was planted in fertile soil and produced a base, ECONET, for us to continue to live and grow.

Whenever I think of the late Chairman Yunho Lee, who is undoubtedly up in heaven, my eyes fill with tears. I can imagine how broadly he would smile at the growth we have achieved and the life we enjoy here. **ECONET**  
since 1976

*Thank you, Chairman Lee.*



인의 축하메세지 (외빈, 내빈)

## Congratulatory Messages from 30 People (Distinguished Guest Contributors and Staff Members)



친애하는 친구여러분,  
유니베라의 30주년을 축하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최상의 자연을 인간에게 가져 준다는 유니베라의 목표는 무척 고무적입니다. 유니베라가 지난 30년간 그러했듯이 앞으로 다가 올 30년도 성심껏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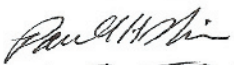
폴 신 (신호범) 워싱턴 상원의원

Dear friends,  
It is my great honor to congratulate you on the 30<sup>th</sup> anniversary of Univera.  
The mission of Univera to "br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is very encouraging.  
I am confident that Univera will continue to be there for you for another 30 years just as it was over the past 30 years.

Paul Shin / Washington State Senator

  
**Washington State Senate**  
**Senator Paul H. Shin, Ph.D.**  
**Vice President Pro Tempore**  
 21st Legislative District  
 P.O. Box 40421  
 Olympia, WA 98504-0421  
 Olympia, WA (360) 756-7640  
 FAX: (360) 780-1525  
 19707 6th Avenue West, Suite 307  
 Lynnwood, WA 98036-9954  
 District P.O. (425) 673-1393  
 FAX: (425) 774-6932  
 e-mail: shin.paul@leg.wa.gov

Dear Friends,  
 It is my great honor to congratulate Univera on your 30th anniversary.  
 Univera's goal of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gether with the rest of mankind is truly inspiring. I know it has served you well over the past 30 years and I am confident it will serve you for 30 more years.

Respectfully,  
  
 Paul H. Shin  
 Washington State Senator



연구라는 기쁨, 남양알로에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박영인

CAP 2기 팀장 고려대 박영인

*I wish Namyang Aloe, a research-supporting company, enduring growth.*

Youngin Park / Professor, Korea University / Team Leader of CAP Phase 2

프리모스키 지역 의회 식품 정책 및 환경 관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남양 알로에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30년이란 남양 알로에는 가시밭의 길을 걸었지만 오늘날에는 전세계 (한국, 중국, 멕시코, 러시아, 미국)에 법인과 자회사를 설립하여 약초 재배, 에센스 추출, 신약 연구, 화장품 및 건강식품의 생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프리모스키 지역에는 남양 알로에의 자회사인 유비콤이 6년전에 설립되어, 지역 영농의 투자 및 개발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산량 증대, 약초 재배의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통하여 무궁한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프리모스키 지역 의회 식품 정책 및 환경 관리 위원장 S.P. 시도렌코

Генеральному директору  
генеральной компании  
"Нам Янг Алоэ"  
господину Ли Бёнг Хуну

Депутаты комитета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по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е и природопользованию сердечно поздравляют Вас и в Вашем лице всех сотрудников генеральной компании "Нам Янг Алоэ" с 30-летием со дня основания. Компанией за этот период пройден большой путь 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о всему миру: в Корее, Китае, Мексике, России, США и других странах созданы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и филиалы занимающиеся производством, выращиванием и выделением экстрактов из лекарственных растений, научными разработками и исследованиями в области фармакологии, производством косметических и фармаколог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аш филиал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ая компания "Юбиком" работает уже шестой год, внося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виде инвестиций в развити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края, создавая рабочие места для населения сельских территорий.

Желаем Вашей компании дальнейших успехов в увеличении объемов и внедрении прогрессивных технологий производства лекарственных растений, благополучия и процветания.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тета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о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е  
и природопользованию

С.П. Сидоренко



Deputies of the committee of Legislative assembly of Primorsky territory on food policies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hearty congratulate you and employees of general company Namyang Aloe with the 30th anniversary of foundation. For this 30 age period company had a thorny way but at the present moment all over the World (in Korea, China, Mexico, Russia and USA) company has its own representatives and branches which cultivate medical plants, extract herbal essences, do scientific researches and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pharmacology and manufacture cosmetics and pharmacology means. On the Primorsky territory the branch of Namyang Aloe the Ubicom Co., Ltd. operates for 6 years, making contribution in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agricultural production of the Region, creating new jobs for people of village area.

*We wish to your company further success in increasing production volumes and implementation of progressive technologies into production of medical plants, well-being and prosperity.*

S.P. Sidorenko / Chairman of the Committee of Legislative Assembly on Food Policies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기능식품 산업발전 중추적 리더 되시길...  
 남양알로에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섬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이루신 업적은 기능식품 업계에 빛나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기능식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는 중추적 리더 기업으로서 무궁하게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기능식품신문 이영복

이영복

*A Pivotal Leader in the Development of the Functional Food Industry*

*I heartily congratulate you on the 30<sup>th</sup> anniversary of Namyang Aloe.*

*The achievements you have made through your endless passion and efforts are setting an example to the entire health supplement and health food industry. I sincerely wish you continuing growth to become a pivotal leader that further advances health supplements.*

Youngbok Lee/ www.hfoodnews.com



남양알로에 창사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욱더 힘찬 도약과 발전으로 천연물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코넷 가족들 모두에게 희망찬 앞날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승기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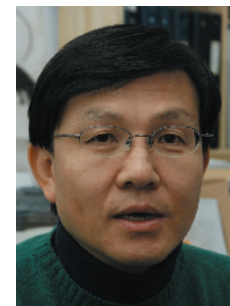
남양알로에 창사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욱더 힘찬 도약과 발전으로 천연물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코넷 가족들 모두에게 희망찬 앞날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이승기

*Congratulations to Namyang Aloe on its 30<sup>th</sup> Anniversary!*

*I wish you prosperity as the world's best company in the natural product market through more powerful breakthroughs and development. I also would like to wish the brightest future to the entire ECONET family.*

Seungki Lee / Dean of College of Pharmacy, Seoul National University



21세기 지식경제는 에코넷의 성공사례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30년 후의 에코넷 모습이  
 기대됩니다.

이장우

21세기 지식경제는 에코넷의 성공사례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30년 후의 에코넷 모습이 기대됩니다.

경북대학교 이장우 교수

*The knowledge economy of the 21<sup>st</sup> century sincerely hopes for an ECONET success story. I look forward to seeing ECONET after another 30 years.*

Jangwoo Lee /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三十而立  
 再创辉煌

— 贺南洋集团成立30周年  
 法南有万宁市 胡光辉  
 2006年3月28日

*In celebration of your 30<sup>th</sup> anniversary, I wish you more remarkable growth in the future.*

*Congratulations on the 30<sup>th</sup> anniversary of Namyang Aloe.*

Hu Guang Hui, Wanning Municip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Mar. 28, 2006

창립3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눈부신 발전을 기원합니다.

남양알로에 창립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중국 공산당 만녕시 위원회 호광휘 서기, 2006년 3월 28일

## ECONET 임원분들 ECONET CEO's

- ▶ 앞으로 다가올 30년도 꿈과 함께하는 행복한 에코넷 커뮤니티를 이루는 30년이 되기를 바라며...

남양 알로에 사장 이병훈

- ▶ *For another 30 years of building our ECONET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dreams, purpose, and happiness together.*

Bill Lee / President & CEO



- ▶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얻은 지난 30년간의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날 느끼는 성취감과 보람을 유니베라 미국도 지금으로부터 23년후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후 30년도 무궁한 발전의 시간이 되기를...

에코넷 웨스트 홀딩스(구 유니베라) 부회장 겸 CEO 데렉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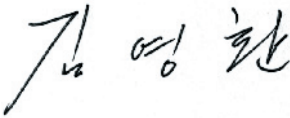
- ▶ *Please accept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30 prosperous years of serving mankind with the wonderful treasures of nature. We here at Univera USA can only hope that we can look back in 23 years from now and see the same sort of success you have experienced. Wishing you another 30 years of success.*

Derek Hall / Vice Chairman and CEO, ECONET, Inc.(Formerly Univera)



- ▶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하는 신념으로 인류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계를 향해 개척해온 남양알로에 지난 30년 역사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 날 것입니다.

남양알로에 부사장 김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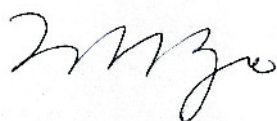


- ▶ *With a belief in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Namyang Aloe has been a global pioneer in making people's lives healthier and more beautiful. Its 30-year history will shine forever just like the stars in the sky.*

Younghwan Kim / Vice President, Namyang Aloe

- ▶ 남양알로에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많은 추억들이 생각이 나네요. 앞날에 언제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다음 30주년을 향하여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유니젠 대표이사 조태형



- ▶ *Congratulations on the 30th anniversary of Namyang Aloe! All those memories made with you are still vividly remembered. I wish you the greatest success and glory in the future. Let's move forward for the next thirty years.*

Taehyeong Cho / President, Unigen-Korea

- ▶ 알로콧 임직원 모두를 대표하여, 에코넷의 성공적인 30주년을 기념할 수 있도록 그동안 애쓴 모든 전, 현직 임직원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알로콧 CEO 피터 헤퍼만

- ▶ *On behalf of all of us at Team Aloecorp,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congratulate and thank all of the present and past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for their contributions in allowing us to celebrate ECONET'S successful 30 year anniversary.*

Peter Hafermann / CEO, Aloecorp



- ▶ 짧지 않은 시간 30년, 숱한 사연과 추억들, 그리고 가슴 뭉클했던 시간들. 남양알로에 30주년을 함께하는 우리들 가슴에 오래오래 기억 될 것입니다.

(주)남양 부사장 김영태

- ▶ *Thirty long years with a myriad of stories, memories, and touching moments. They will be cherished in our hearts for a long, long time as we celebrate the 30th anniversary of Namyang Aloe together.*

Youngtae Kim / Vice President, Namyang



- ▶ 남양 알로에의 동료 에코네시안 여러분, 창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정신과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에코넷의 미션, 비전, 가치관의 좋은 모범입니다. 창립 50주년도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니젠 미국 사장 겸 COO 리건 마일스

- ▶ *To my fellow ECONETIANs at Nam Yang Aloe: Congratulations on the celebration of your 30th anniversary. This is a great testament to your spirit, dedication and a great example of the ECONET mission, vision and values.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r 50th anniversary. Best Regards,*

Regan Miles / President & COO, Unigen USA



- ▶ 창립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ECONET 가족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Поздравляю с 30-летним юбилеем компании"

유니젠-러시아 사장 구원모



- ▶ *My sincerest congratulations on the 30th anniversary of the company's founding. I am very excited and proud to be a member of the ECONET family.*

Wonmo Koo / President, Unigen-Russia

- ▶ 창사 30주년이라는 뜻 깊은 날을 맞아, 중국 하이난 알로콧의 전 직원을 대표하여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앞으로 회사의 무궁한 발전과 전 직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하이난(海南) 남양알로에 바이오공정(미국)유한공사 겸 하이난알로콧 남양 개발유한공사 사장 한상준(韓相駿)

- ▶ 在公司成立30周年的喜慶日子里,清允許我代表中國公司的全體員工,表達我 的良好的祝願:祝公司的事業蒸蒸日上,祝全體員工身體健康!  
 海南南洋蘆生物工程(美國)有限公司 및 海南万寧南洋開發有限公司 總經理 韓相駿

- ▶ *On behalf of the staff of Hainan Aloecorp, I heartily congratulate you on your 30<sup>th</sup> anniversary - a very significant occasion. I wish the greatest success to the company and to the entire staff!*

Sangjun Han / President, Hainan Aloecorp & Hainan Namyang



- ▶ 오로지 한길 30년, 알로에 건강복음을 전하기 위해..., 뚜벅 뚜벅 걸어온 30년,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  
 또 다른 30년을 뛰기 위해 준비된 기업, 유니베라! 축하와 응원을 보냅니다.

에코넷 웨스트 홀딩스(구 유니베라) 사장 성한웅

- ▶ *Followed a single path for the past 30 years to deliver well-being from aloe. Took one step after another for 30 years to br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Fully geared up for another 30 years of successes - Univera! I offer my sincerest congratulations and best wishes.*

H.Y. Sung / President & CFO, ECONET, Inc. (Formerly Univ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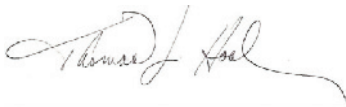


- ▶ 에코넷 웨스트의 모두 창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열정, 정신, 성과는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달하는 우리 모두에게 훌륭한 자극제가 되고 있으며,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에코넷 웨스트 홀딩스(구 유니베라) 부사장 겸 General Counsel 토마스 홀리안

- ▶ *We at ECONET West congratulate you on your 30<sup>th</sup> Anniversary. Your passion, your spirit and your accomplishments are an inspiration and a challenge to us all as we Br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Thomas J. Hoolihan,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General Counsel, ECONET, Inc. (Formerly Univera)



- ▶ 청년으로 성장한 남양알로에의 30년을 축하합니다. 또한 새롭게 세상에 나온 유니베라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남양알로에와 함께 한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유니베라와 함께 할 임직원의 새로운 출발에 신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ECONET 기업본부 COO 윤경수

- ▶ *Congratulations on Namyang Aloe's 30<sup>th</sup> anniversary and on its full matu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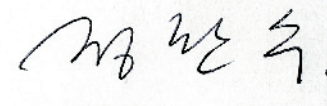
*Congratulations as well on the birth of Univera as it enters the world. I appreciate all the efforts of the staff of Namyang Aloe. May God bless you in your new start as Univera.*

K.S Yoon / COO, ECONET Corporate Center



- ▶ 30주년을 축하하는 순간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지나온 30년은 향후 30년을 위해 무척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 없이는 과거가 장애일 수도 있음을 잘 알고 미래 개척을 위해 모두 함께 정진합니다.

남양알로에 COO 정찬수



- ▶ *I am pleased to be a part of this celebration of the 30<sup>th</sup> anniversary.*

*The past 30 years are very important for the next 30 years. However, let's remember that the past may only be an obstacle without change and innovation for the future. Let's move forward to create a new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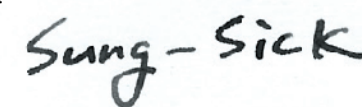
Chansoo Chung / COO, Namyang Aloe

- ▶ 30년의 노고와 땀으로 예고된 에코넷의 성공을 기리며...

유니젠 한국 총괄상무 우성식

- ▶ *For the destined success of ECONET, based on thirty years of our Efforts*

SungSick Woo / Managing Director, Unigen Korea



## 1976년생 (Born in 1976)

- ▶ *ECONET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지난 1년 반동안 이 회사의 한부분으로 일했던 것에 대해 무척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30은 좋은 숫자예요!*

브룩 브론슨 (오아시스, 고객관리) / 1976년 생

- ▶ *Congratulations on ECONET's 30<sup>th</sup> anniversary!*

*I feel very fortunate to have been a part of this company for the past year and a half. Thank you for the great opportunity. Thirty is a lucky number!*

Brook Bronson / CSR, Oasis / Born in 1976

- ▶ 30주년을 축하합니다. 30년 전 이맘 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손꼽아 태어나길 기다리고 있던 존재였죠. 이병훈 사장님도 30년전 비슷한 심정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놀라운 성장과 성공에 진심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데이브 콜먼 /에코넷 웨스트 홀딩스(구 유니베라), DBA 프로그래머 / 1976년 생

- ▶ *Happy 30<sup>th</sup> anniversary! Around this time thirty years ago my father must have been looking forward to my birth. I’ m sure Bill Lee felt a similar way.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e marvelous growth and success!*

Dave Coleman / DBA Programmer, ECONET, INC. (Formerly Univera) / Born in 1976

- ▶ 30주년을 축하합니다. ECONET의 일원이 된 것과 이 즐거운 날을 함께 나누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그리고 영원히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타오 트린 (유니젠 미국, 연구원) / 1976년 생

- ▶ *Congratulations on the 30<sup>th</sup> anniversary! It is a great honor to be a part of ECONET and celebrate this exciting day together. I wish you all the best and the greatest prosperity.*

Thao Trinh / Researcher, Unigen-USA / Born in 1976

- ▶ 올해로 30세가 되는 것이 무척 신이 납니다. 그동안 많이 성장하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나의 기술이 Econet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맷 카론 (알로콧, 연구개발 화학자) / 1976년 생

- ▶ *I am very excited to be thirty years old this year. I have matured greatly and have learned a lot. I hope my expertise can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ECONET.*

Matt Caron / R&D Chemist, Aloecorp / Born in 1976

## 4월 5일 입사 / *Employees who joined the company on April 5*

- ▶ 에코넷의 창립기념일에 입사 1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무척 행운인 듯 합니다.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크리스틴 네일즈 (오아시스, 고객관리) / 4월 5일 입사

- ▶ *I feel extremely lucky to celebrate my first anniversary of coming to work with the company on the founding day of ECONET. Happy 30<sup>th</sup> anniversary!*

Kristina Neils / CSR, Oasis / Joined the company on Apr. 5

## 그 외 직원분들 / *Employees*

- ▶ 하나의 이상에 지나지 않았던 꿈이 30년후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우리 모두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남양 알로에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알로콧 멕시코 운영 담당 이사 어네스토 살가도

- ▶ *30 years since a dream got the strength of an ideal and became a reality: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We all are witness of it! CONGRATULATIONS IN THE 30<sup>th</sup> ANIVERSARY NAMYANG ALOE*

Ernesto Salgado / Director of Operations, Aloecorp de Mexico

- ▶ 창사 30주년을 축하 드립니다. 창사30주년을 맞이하여,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축원합니다. 또한 임직원 모두 건강하시고 한마음으로 단합하여 바라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하이난 알로콧 린다

- ▶ *Congratulations on the 30<sup>th</sup> anniversary. I wish you everlasting growth and prosperity on the occasion of the 30th anniversary. I also wish you all good health and grand solidarity in making even greater dreams come true.*

Linda / Hainan Aloecorp

- ▶ 알로콧과 같이 발전을 거듭하는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이런 기회를 저에게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알로콧 품질 관리부 마리솔 헤르난데즈

- ▶ *I feel honored to be working for a growing company like Aloecorp. I am very thankful for the people who have given me the opportunity to do s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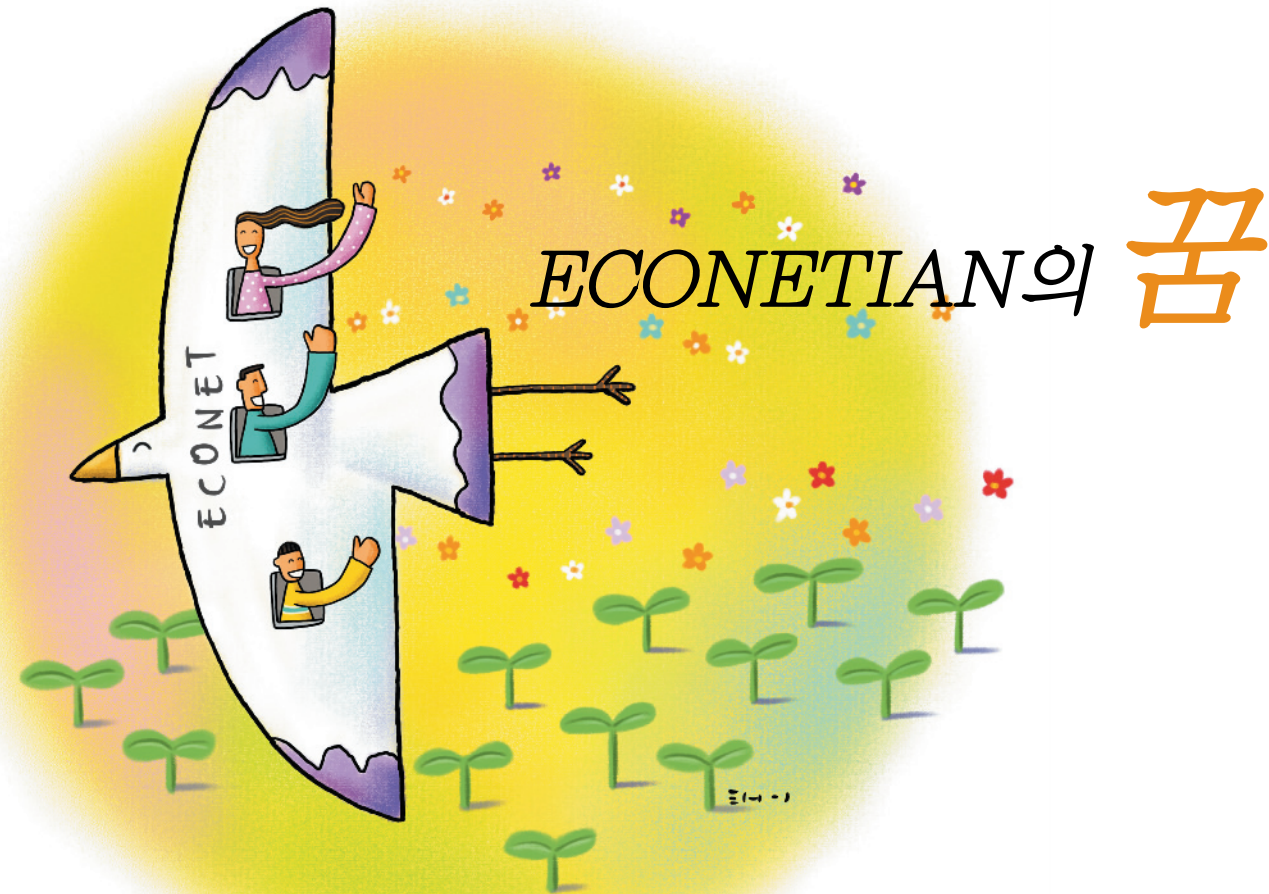
Marisol Hernandez / Quality Control Assistant, Aloecorp

- ▶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30주년을 기념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어린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남양 알로에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롭습니다.  
에코넷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양 알로에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기를....

유니젠 러시아 이사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 시도렌코

- ▶ *Esteemed colleagues and friends! With all my heart I congratulate YOU with 30<sup>th</sup> anniversary! We all are really proud of being members of our Namyang Aloe’s family and that by doing our best we are able to do a part for reaching corporative objects and goals. We wish to everybody who involved in Namyang Aloe Corporation family well-being, health and successful career. May good luck attend you.*

Vladimir Petrovich Sidorenko/ Director, Unigen - Russia



### 2036년 4월 5일 에코넷 스케치

굴지의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한 에코넷은 전 세계 천연물 기업의 표준이다. 천연물 시장의 1위의 위상은 이미 확고하게 다져졌고 모든 산업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기업으로 에코넷이 손꼽히고 있다. 직원수는 필드 인력을 포함 100만명이 넘고 에코넷의 전체 매출액은 2006년 물가를 기준으로 약 100조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그동안 에코넷이 이룩한 제품, 경영 관행, 서비스, 기업문화는 이미 신화로 자리잡아 모든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에코넷은 전 세계적인 입지를 구축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주요 천연물 산지에 에코넷 농장과 R&D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전세계의 어디를 가나 에코넷의 디지털 간판을 볼 수 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에코넷이 없으면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에코넷은 건강 서비스와 건강식품, 약품, 화장품 등을 전 세계 인류에 전달하여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하는 기업의 철학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고 있다. 에코넷은 뛰어난 농장 및 천연물 산지의 관리와 R&D를 통해 신화적인 제품혁신을 이룩해왔다. 그동안 에코넷이 기록한 초대박 상품들은 업계의 상식을 깨는 것들이었다. 1일 영양캡슐, 기능성 식품 프랜차이즈 알로에 치킨, 우주 식량, 우주여행 시차극복 약품, 나이들어도 키크게하는 신체사이즈 조절 프로그램, 장기이식 부작용 완화제, 우울증 개선음료, 신체건강 밸런스 서비스, 수험생 머리좋아지는 식품, 노화방지식품, 대기권 출입 기능성화장품, 생체 컨디션 조절식품 및 약품, 유전자 맞춤 영양제, 특수 면역약품, 부작용이 없는 근육강화제, 주름개선제품, 건강완성 프로그램, 치매 치료제, 힐링센터, 신비의 불로장생약 Uni-X, 맛있는 다이어트 식품 등 역사에

기록될 제품과 서비스가 개발되는 등 1000여종의 제품이 에코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에코넷은 새로운 기업문화를 리드하고 있다. 에코넷이 벌이고 있는 사회활동은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동력이 되고 있다. 에코넷은 천연물 생태를 연구하고 보존하는 활동에 있어서 가장 앞선기업이다. 이병훈 회장은 천연물 생태보존활동 및 에코넷을 통한 사업과 사회활동이 인류의 복지에 끼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에코넷의 R&D 센터는 수많은 신물질개발로 세계 난치병 치료에 새 길을 열고 있다. 에코넷 R&D센터는 노벨 의학상, 생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사관학교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3년 연속으로 노벨 의학상, 4년 연속으로 생물학상을 연속으로 수상하였다.

에코넷은 존경받는 기업 1위,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 1위를 단골로 차지하고 있다. 에코넷에 근무한다는 것 만으로도 그들은 최고의 신랑감, 신부감으로 손꼽힌다. 에코네시안들에게는 언제나 최고의 교육 기회, 라이프 사이클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 2036년 4월 5일 일기

에코넷 호주 리조트에서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에코넷이 60년이 되었다니 참으로 축하할 만한 날이다. 대한민국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에코넷 센터에서 기념식을 진행한다니 옛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 30여년전에 에코넷에 갓 입사했던 사회 초년생이던 친구들은 이제 세계 각국의 CEO가 되었다. 에코넷의 리더양성프로그램이 너무도 훌륭해서 인지 이들은 최고의 경영 드림팀을 이루고 있다.

나는 좀 일찍 은퇴한 감은 있지만 경영 컨설턴트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한동안 기업들의 경영자문요구와 언론사 기자들에게 지나치게 시달리는 느낌이 들

어 이곳 호주 리조트에 묵게된지도 일주일 정도되었다. 에코넷 건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활용한 결과 내 나이 70에 30대 초반 같다는 얘기를 흔히 듣고 사는 나지만 호주 리조트에서 며칠 묵었더니 몇 년은 더 젊어진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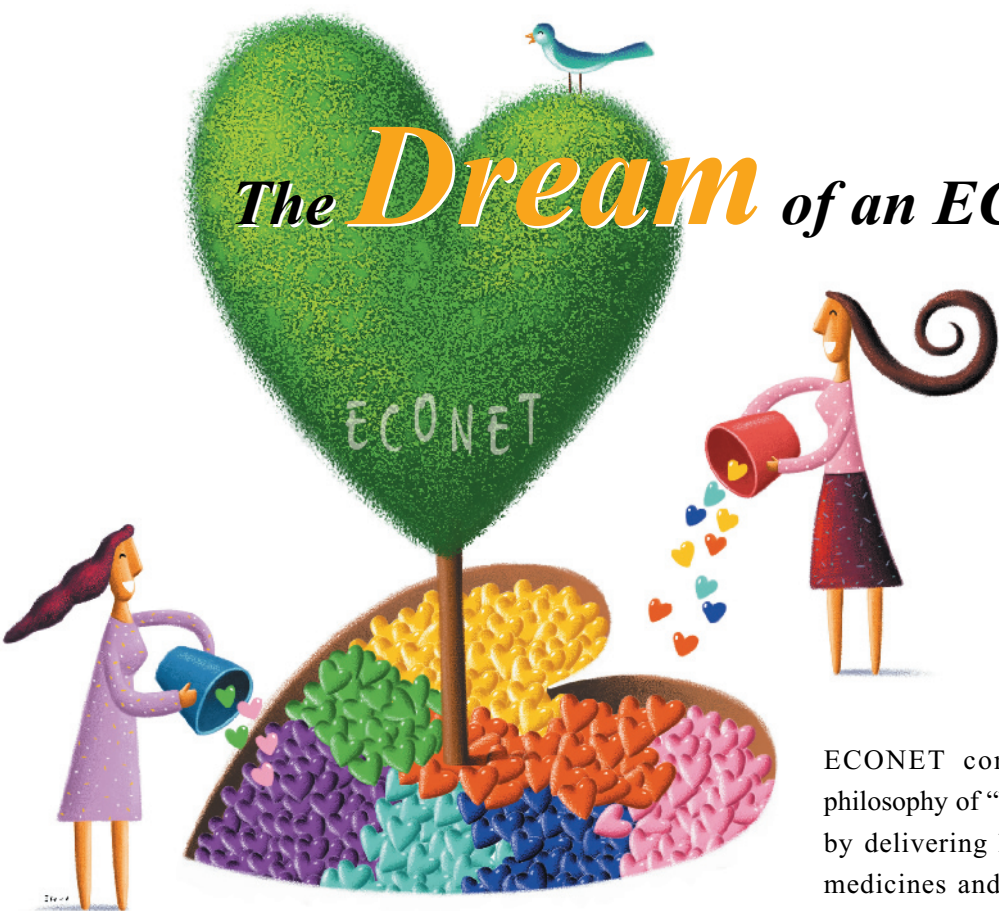
이제 75세가 된 이병훈 회장이 내일은 Derek Hall 전 에코넷 부회장님과 골프를 하자고 하신다. 이 분들은 최근에도 자주 통화 하시는 것 같다. 건강도 아주 좋다고 하시고, 하긴 그 연세에 마라톤, 철인 3종 경기를 즐기시니 대단하신 분들이다.

위 기사는 '우리가 꿈꾸는 에코넷 30년' 설문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해 본 것입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에코네시안분들께는 작은 성의로 포시즌 **썸크림 1개** **씩을 드리겠습니다.** ECONET since 1976

### 설문지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남양알로에 / 김영환, 이재은, 신은주, 이정수, 심규석, 최윤선, 정현정, 김훈경, 조성훈, 신인수, 김경미, 황혜정, 최민정
  - 남양 / 김남규, 이자은, 김진영, 김정은, 유승환, 유홍석, 이충현, 정형철, 이재현, 정찬대, 채진희, 김영미
  - 유니젠 / 최재영, 이영철, 민병국, 차경섭, 장미라, 김태우, 성수정
  - 에코넷 웨스트 홀딩스 / 데렉홀 - 부회장 겸 CEO
  - 알로콤 / 피터 해퍼만 - CEO
  - 오아시스 / 브라이슨 토마스, 프레스턴 킬러, 사라 펠, 안드레아 킬몬, 에드 클락, 스카티 쿠퍼스
  - 유니젠 미국 / 웬웬마, 제이시 얼리와인
- <무기명> - 4명은 에코넷웨이 편집실로 연락주세요

에코넷 웨이 편집실



## The *Dream* of an *ECONETIAN*

### *A sketch of ECONET on April 5, 2036*

ECONET has grown to become a prominent multinational company and sets the standard for every natural product company worldwide. Its number one position in the natural product market is rock-solid. In fact, ECONET is considered the greatest company across all industrial sectors. It now has more than one million employees including sales agents. ECONET's total sales are about

\$100 billion when indexed to 2006 levels. The products, business practices, services and corporate culture that ECONET has achieved so far have become legendary and are benchmarked by every company.

ECONET has built a global network. Nearly every major natural product-producing district has an ECONET plantation and an R&D center. ECONET's digital signboards can be seen everywhere throughout the world. All the people around the world cannot maintain their daily lives without ECONET.

ECONET continues to practice its corporate philosophy of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by delivering health services, health supplements, medicines and cosmetics to people all around the world. It has achieved epochal product innovation through outstanding efforts in managing plantations and natural product-producing districts and in R&D activities. Some of the mega-hit, best-selling products launched by ECONET have been truly extraordinary and visionary in the industry. They include: one-a-day nutrient capsule, functional food franchise Aloe Chicken, space foods, a medicine that allows one to overcome jet lag from a space trip, a body size-controlling program that helps people grow taller even after their growth stage, a medicine to ease the side effects of organ transplants, a depression alleviating drink, a healthy body balance service, foods that make students smarter, anti-aging foods, functional cosmetics for traveling beyond the atmosphere, foods and medicines that regulate the body's condition, vitamins tailored to one's genetic makeup, special immunity drugs, muscle builders free of side effects, wrinkle improving products, a perfect health program, cures for dementia, a healing center, miraculous drug for eternal youth Uni-X and tasty diet foods. About

1,000 products, including some products and services that are sure to be historic, are provided through ECONET.

ECONET heads a new corporate culture. Social services launched by ECONET have become a leading driving force that maintains local communities. ECONET is the greatest forerunner in the study and preservation of the ecology of natural products. Chairman Bill Lee was awarded the Nobel Peace Prize for his achievements in natural product ecology preservation activities and his contributions to the well-being of mankind through ECONET's business activities and social services. ECONET R&D centers have developed a great many new materials and made breakthroughs in treating incurable diseases. The ECONET R&D Center is recognized as a military academy for cultivating Noble Prize laureates in medicine and biology. It has won the Nobel Prize for Medicine three consecutive years and the Nobel Prize for Biology four consecutive years.

ECONET regularly ranks at the top of lists of most respected companies and most desirable workplaces. The fact that you work at ECONET is enough to make you the most eligible bachelor or bachelorette. This is because ECONETIANs are assured of the most optimal education opportunities and lifestyles at all times.

### *Diary entry, April 5, 2036*

I woke up at six o'clock this morning at the ECONET Resort in Australia. ECONET is celebrating the 60<sup>th</sup> anniversary of its founding this year. It is truly worthy of celebration. I am really looking forward to meeting my friends from the old days at the ceremony that will be held at the ECONET Center in Seongsu-dong, Seoul, Korea. My friends that had just started working for ECONET and were the newest members of society thirty years ago are now working as CEOs all around the world. They are all members of the management dream team thanks to the excellent Leadership

Program provided by ECONET.

Although I retired somewhat early, I am still renowned as a management consultant. I came to this resort in Australia about a week ago to escape from all the companies that are constantly seeking my advice and the journalists that are always trying to interview me. Thanks to my steady use of the ECONET health program, people often tell me that I look like I'm still in my early thirties although I'm actually 70 years old. Nevertheless, I feel a few years younger after staying at this resort a few days.

Chairman Bill Lee, who is now 73 years old, invited me to play golf with him and Derek Hall, former Vice Chairman of ECONET. They seem to be staying in touch quite often. They are keeping themselves in a terrific shape. It is unbelievable how they run marathons and participate in triathlons at their age. The above article has been created based on the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The ECONET We Dream of 30 Years Later.”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will be presented with Four Season Sun Cream.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ECONET since 1976

### *Thanks To*

- **Namyangaloe** / Youngwhan Kim, Jaeun Lee, Eunju Sin, J.S. Lee, G.S Sim, Y.S Choi, H.J Jung, H.K Kim, S.H Cho, I.S Sin, K.M Kim, H.J Hwang, M.K Choi
- **Namyang** / N.G Kim, J.E Lee, J.Y Kim, J.E Kim, S.H Yoo, H.S Yoo, C.H Lee, H.C Jung, J.H Lee, C.D Jung, J.H Chae, Y.M Kim
- **Unigen Korea** / J.Y Choi, Y.C Lee, B.G Min, K.S Cha, M.R Jang, T.W Kim, S.K Sung
- **ECONET, Inc.** / Derek Hall
- **Aloecorp** / Peter Hafermann
- **Oasis** / Bryson Thomas, Preston Keeler, Sarann Pel, Andrea Tilmon, Ed Clark, Scotty
- **Unigen USA** / Wenwen Ma, JC Earlywine

ECONET Way Editorial Desk

# 연혁으로 보는 ECONET 30년

- 1976년 4월 국내 최초로 알로에 시험재배 성공
- 1984년 4월 자본금 15억원으로 남양알로에 농산 창립
- 1985년 1월 알로엑스겔, 아보민정, 분말 등 국내 최초로 알로에 제품화 성공
- 1986년 12월 사보 “노화” 창간
- 1987년 9월 한국우수포장대전 포장디자인부 입상 (식품부, 장업부) 한국무역협회장상 수상
- 1988년 1월 국제알로에 기준 심의 협의회(IASC) 가입
- 3월 남양알로에 장업 설립
- 4월 미국현지법인 설립 Aloecorp 설립
- 1989년 9월 제24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대전 포장디자인 부문 입상(식품부) & 알로에 연구재단 설립 (A.R.F), 멕시코 탐피코 농장 준공
- 1990년 1월 남양알로에 농산에서 (주)남양알로에로 법인 전환
- 9월 건강보조식품업계 최초 KGMP공장인 진천 제1공장 준공
- 12월 멕시코 탐피코 공장 준공
- 1991년 5월 텍사스공장 증축 준공
- 6월 돈 호프 박사 초청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순회강연회
- 7월 인천, 춘천, 청주, 상주, 제주, 울산 등 창립 15주년 기념 시민건강페스티벌 개최
- 10월 천연약물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후원
- 1992년 10월 건강보조식품업계 최대 KGMP공장인 진천 제2공장 준공
- 1993년 6월 알로에 신약개발연구 CAP Project 발대
- 1994년 1월 94 우수포장상품선정제품(GP),

- GP 마크 획득 & 칼리하이, 아보민골드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원장상 & 피아세르, 더맨 / 우수포장 선정 & 포장개발 성공사례 모집 <더맨> 대상 수상
- 4월 알로에 신약개발연구 1차 중간 발표
- 1996년 1월 이병훈 사장 취임
- 3월 경기도 이천에 청강문화산업전문대학 개교
- 4월 창립20주년 기념 CI도입 & 천연생명공학 전문회사 UPI (유니베라 파머슈티컬)社 설립 & 알로에 신약개발연구 (CAP PROJECT) 3차 중간발표
- 1997년 3월 알로에 신약개발연구 4차 중간발표
- 4월 故 이연호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 11월 남양알로에 생명과학연구소 개소
- 12월 제3회 세계화 우수사업 경진대회 은상 수상
- 1998년 1월 국내 건강보조식품 업계 최초, 98프랑스월드컵 공식지정상품 선정
- 3월 국내화장품업계 최초 라망화장품 IR52 장영실상 수상
- 7월 일본 The Birth社와 기술이전계약 조인
- 9월 류병팔 박사 초청 서울, 청주, 대구, 부천, 부산, 광주 등 전국순회강연 개최 & 이병훈 대표이사 청강대 이사장 취임
- 1999년 3월 러시아 연해주 영농사업 조인식
- 4월 “알로에 사랑나누기” 캠페인 시행
- 11월 알로엔즈 제1회 한국밀레니엄상품(KMP) 선정
- 12월 알로엔즈 '99 산업디자인상 수상

- 2000년 4월 분사경영 시행 ((주) 남양알로에, (주)남양, (주)유니젠)
- 7월 제2회 러시아 연해주 농활팀 파견
- 9월 이병훈 대표이사 국제알로에 협회(IASC) 회장취임
- 10월 중국 해남도 현지법인 설립
- 2001년 2월 남양알로에 생명약학 학술상 제정
- 9월 이병훈 대표이사 IASC ‘명예의 전당’ 첫 헌정
- 11월 알로에정보은행’ aloematix.com’ 오픈 &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솔루션 NIT21 구축
- 12월 알로에포맨 2001 산업디자인상 선정
- 2002년 8월 한마음 전진대회 실시
- 9월 제1회 건강기능식품 박람회 참가
- 10월 알로청 발매
- 10월 CAP 연구원 총회
- 10월 NIS21 프로젝트 출범
- 11월 남양알로에 대학생 해외봉사단 사진전 개최
- 2003년 1월 대구경북팀 발족 및 대전 사무소 개소
- 4월 남양알로에 BI(Brand Identity) 선포
- 5월 액티브알로에, 산업자원부 세계 일류상품 인증
- 5월 식품안전의 날 기념 건강달리기 대회 참가
- 7월 러시아 크라스키노 농장, 임직원 연수 실시
- 8월 에코넷(ECONET) 비전 선포
- 8월 국제 알로에 심포지움 개최
- 8월 CAP2기 중간 발표회
- 10월 신제품 ‘아토알로에’ 출시
- 10월 ECONET SHRM Roadmap 발표
- 11월 IASC, 故이연호 회장 ‘명예의 전당’ 헌정
- 12월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구축

- 12월 25주년 사사 커뮤니케이션 대상 우수상 수상
- 2004년 1월 V.I(Visual Identity)변경
- 5월 신제품 에너벨 출시
- 6월 러시아 크라스키노 농장, 임직원 연수 실시
- 7월 미국 현지법인 본사 덴버에서 씨에틀로 이전
- 8월 신제품 알브라이트 출시
- 9월 제 23회 IASC(International Aloe Science Council, 국제알로에기준심의협회)개최 / 동양권에서 최초로 개최
- 10월 난치병 환아돕기 세브란스 마라톤 후원
- 11월 KBS 신화창조의 비밀 [액티브 알로에] 소개
- 11월 제1회 종로영화제 후원
- 12월 [알로엑스골드 액티브알로에] 히트상품 선정
- 12월 도서 [10년 후, 길이 있다] 이병훈 대표이사 수록
- 2005년 1월 금강산에서 시무식 진행
- 4월 신사옥 ECONET Center 준공
- 5월 체지방 신제품 [메타블릭] 출시
- 5월 신제품 [포시즌 섉크림] 출시
- 7월 신제품 [베라스파 바디 & 헤어 케어]제품 출시
- 7월 남양알로에 [소비자 사랑 국민브랜드 대상] 선정
- 9월 제1회 자연을 꿈꾸는 수요음악회 개최
- 10월 에코넷센터 ‘건축문화대상’ 특선 수상
- 10월 중국 해남도 농장, 임직원 연수 실시
- 10월 KBS 체험 삶의현장 600회 특집 [남양알로에 멕시코 농장 편] 방영
- 11월 에코넷센터 ‘건축가협회상’ 올해의 건축물 BEST 7 선정
- 2006년 4월 창립 30주년

# The 30-Year History of ECONET

1976 Apr. Succeeded in the experimental cultivation of aloe for the first time in Korea

1984 Apr. Founded Namyang Aloe Agricultural Industrial Company with a paid-in capital of 1.5 billion won

1985 Jan. Succeeded in producing Korea's first aloe products: Alo-X, Arbomin Powder and Arbomin Tablets

1986 Dec. Published company newsletter "Nohoe"

1987 Sep. Won awards in the Packaging Design Division of the Korea Best Packaging Competition (food and cosmetic categories) and won the KTFA President's Prize

1988 Jan. Joined the International Aloe Science Council

Mar. Founded Namyang Aloe Cosmetics

Apr. Founded Aloecorp, the US subsidiary

1989 Sep. Won an award in the Packaging Design Division of the Korea Industrial Design Contest (food category); founded the Aloe Research Foundation (A.R.F); opened an aloe plantation in Tampico, Mexico

1990 Jan. Namyang Aloe Agricultural Industrial Company renamed Namyang Aloe Co., Ltd.

Sep. Built Jincheon Factory No. 1, Korea's first KGMP factory in the health supplement industry

Dec.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a factory in Tampico, Mexico

1991 May. Completed the expansion of a factory in Texas, U.S.A.

Jun. Invited Dr. Don Hope to take part in a nationwide lecture tour with stops in Seoul, Daejeon, Busan, Daegu and Gwangju

Jul. Held the Citizens' Health Festival in Incheon, Chuncheon, Cheongju, Sangju, Jeju and Ulsan in celebration of the 15<sup>th</sup> anniversary of the company's founding

Oct. Held and sponsored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Natural Pharmacology

1992 Oct. Built Jincheon Factory No. 2, Korea's largest KGMP factory in the health supplement industry

• 1993 Jun. Launched the CAP (Creation of Aloe Pharmaceuticals) project

1994 Jan. Nominated for the '94 Good Packaging (GP) Awards and obtained GP mark; Cali-hi and Arbomin Gold awarded the Korea Design Packaging Center President's Prize; Piacere and The Man selected as the best-packaged products; The Man awarded the Grand Prize in the Packaging Development Success Case Contest

Apr. Presented the first CAP Project Progress Report for the

Jan. Bill Lee appointed as CEO

Mar. Opened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in Icheon, Gyeonggi-do

Apr. Introduced CI in celebration of the 20<sup>th</sup> anniversary of the company's founding; founded UPI, a bio-engineering company; presented the third CAP Project Progress Report

1997 Mar. Presented the fourth CAP Project Progress Report

Apr. The Moran Order of Civil Merit Medal was awarded to the late Chairman Yunho Lee

Nov. Launched the Namyang Aloe Life Science Research Institute

Dec. Won silver in the 3<sup>rd</sup> Globalization Best Practice Contest

1998 Jan. Selected as an official product of the '98 World Cup in France - a first among Korean health supplement products

Mar. Ramen Aloe Whitening won the IR 52 Jang Young Shil Award for the first time in the cosmetics industry in Korea.

Jul. Signed a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with Japan company Birth, Inc.

Sep. Nationwide Lecture Tour given by Dr. Byungpal Yu, with stops in Seoul, Cheongju, Daegu, Bucheon, Busan and Gwangju; CEO Bill Lee appointed Chairman of Cheo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1999 Mar. Signed a farming agreement in the Maritime Provinces, Russia

Apr. Launched the "Aloe Love-Sharing" campaign

Nov. Aloenne selected as a Korea Millennium Products (KMP)

Dec. Aloenne declared a winner in the '99 Industrial Design Awards

2000 Apr. Spun off Namyang Aloe, Namyang and Unigen Korea

Jul. Dispatched the second volunteer team for farming activities in Russia

Sep. CEO Bill Lee elected Chairman of the Board of IASC

Oct. Founded a subsidiary on Hainan Island, China

2001 Feb. Introduced the Namyang Aloe Bio-Pharmaceutical Academic Award

Sep. CEO Bill Lee received the first IASC Hall of Fame Award

Nov. Launched aloematrix.com, an aloe information database; established NIT21, a PRM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solution

Dec. Aloe for Men declared a winner in the 2001 Industrial Design Awards

2002 Aug. Launched the Hanmaeum Movement Rally

Sep. Participated in the first Health Supplement Product Expo

Oct. Launched new product Alochung

Oct. Held a CAP researcher General Assembly

Oct. Launched the NIS21 Project

Nov. Held a photo exhibition of the Namyang Aloe university student volunteer team for overseas farming activities

2003 Jan. Created the Daegu-Gyeongbuk Team and opened the Daejeon Office

Apr. Declared the Namyang Aloe Brand Identity

May. ACTIValoe obtained World-Class Product certification from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May. Participated in the Run for Health Competition in celebration of Food Safety Day

Jul. Held an employee training session at the Kraskino plantation in Russia

Aug. Declared the ECONET Vision

Aug. Held the International Aloe Symposium

Aug. Held a progress review for the second phase of CAP

Oct. Launched new product ATOALOE

Oct. Announced the ECONET SHRM Roadmap

Nov. The late Chairman Yunho Lee posthumously honored with the IASC Hall of Fame Award

Dec. Built the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system

Dec. Won top prize in the Communication Awards

2004 Jan. Modified the Visual Identity (VI)

May. Launched new product Enerbal

Jun. Held an employee training session at the Kraskino plantation in Russia

Jul. Relocated the headquarters of US subsidiaries from Denver to Seattle

Aug. Launched new product Albright

Sep. Hosted the 23<sup>rd</sup> IASC Annual Scientific Seminar in Korea - the first meeting to be held in Asia

Oct. Sponsored the Severance Hospital Marathon to benefit children suffering from incurable diseases

Nov. ACTIValoe featured in Secrets Behind the Creation of a Legend broadcasted by KBS

Nov. Sponsored the first Jongno Film Festival

Dec. Alo-X Gold ACTIValoe selected as a Hit Product

Dec. CEO Bill Lee featured in the book There is a Road Ten Years Later

2005 Jan. Hosted the year's opening ceremony at Geumgang Mountain

Apr.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ECONET Center, a new office complex

May. Launched Meta Block, a new product for controlling body fat

May. Launched new product Four Season Sun Cream

Jul. Launched new product Veraspa Body and Haircare

Jul. Namyang Aloe nominated in the Awards for National Brands Loved by Consumers

Sep. Held the first Dreaming of Nature Wednesday Music Concert

Oct. ECONET Center won a special award in the 2005 Korean Architectural Culture Awards

Oct. Held an employee training session at a plantation in Hainan Island, China

Oct. Aloe plantation in Tampico, Mexico spotlighted in a special feature celebrating the 600<sup>th</sup> episode of Experience the Life on KBS

Nov. ECONET Center selected as one of the Seven Best Buildings of the Year in the Korea Institute of Architects Awards

2006 Apr. Celebrated the 30<sup>th</sup> anniversary of the company's founding





## “제품 개발은 우리에게 맡겨라, 신제품개발 소위원회 파이팅”

(주)남양과 남양알로에 제품개발

글 - (주)남양알로에 마케팅본부 고객지원팀 박정아 팀장 / 기자

‘하하하,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기존 제품 부자재는 얼마나 있나요? 일정 조정을 위해 자료 확보가 필요하겠네요.’

‘그 부분은 고객이 제품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바뀌을까요?’

위원들이 만나는 장면에서는 활기차고 신나는 기분이 느껴진다. 이어지는 회의는 사뭇 진지하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가득 찼다.

히트 제품의 개발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남양알로에가 현재의 발전을 이룩한 것은 알로엑스 골드 액티브 알로에, 남양931, 알로맥, 라망... 등 많은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이런 제품들이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중차대한 업무는 신제품 개발 위원회(GATE 운영)와 신제품 개발 소위원회(이후 ‘신개소위’)가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신제품 개발 위원회는 남양알로에 자체적으로 제품 개발 방향, 전략, 컨셉 등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신개소위는 남양과

남양알로에 양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부자재개발, 생산성 검토, 생산일정, 기존재고 현황파악과 처리 방안, 발주, 출입고 등 세부적인 논의를 담당한다.

신개소위에서는 다양한 팀들이 참여하여 제품개발과 출시와 관련된 모든 이슈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검토하여 우수한 제품이 차질없이 출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남양알로에에서는 BM팀, 제품연구팀, 고객지원팀, 경영지원팀이 참여하고 있고, 남양에서는 영업팀(예정수팀장과 팀원), 연구실(안계환실장), 품질혁신팀, SCM팀이 참여하고 있다.



신개소위의 운영은 양사에서 번갈아가며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된다. 매달 한번의 회의를 통해 제품개발의 세부적인 사항을 직접 만나 점검하고 확인하여 제품개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물론 위원회가 열리는 사이사이 전화나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무수한 업무협의를 실행이 이루어진다. “전화상으로 파악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회의를 통해 빠르게 조정하고 업무 진행 중 생각지 못한 사항들을 회의를 통해 도출하여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라고 신개소위의 위원들을 말한다.

신개소위의 활동은 분사를 하게 된 2000년 이후 더욱 중요해졌다. 제품 생산전문화사인 (주)남양과 마케팅·판매 전문 회사인 남양알로에 사이의 주요한 제품개발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신개소위를 개최하는 것은 이외에도 여러 좋은 점들

이 있다. 우선 제품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제품 개발에 반영할 수 있어 고객의 소리와 제품생산을 직접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객지향적 제품개발과 생산이 그 결과물이다. 또한, 신개소위는 ECONETIAN으로서의 동료애를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친밀감은 크게 늘어나고 편안한 자리에서 서로 술이라도 한잔 나누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고.

서로 다른 회사에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업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친밀감이 높아짐에 따라 협업의 생산성도 더욱 높아진다.

신개소위는 이런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합동워크숍과 같은 일정도 계획하고 있다. 합동워크숍은 신개소위에 참여하는 양사의 직원들이 팀워크를 다지고 협력의 미래 발전 방향을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Leave Product Development to Us - New Product Development Subcommittee. Go! Go! Go!”* Product development at Namyang and Namyang Aloe

By Jeong Ah Park, Customer satisfaction Team Manager, Marketing, / Namyang Aloe / Korea / Reporter

*“Ha, ha, ha... Nice to meet you!”*

*“Hello! How are you doing?”*

*“What quantity of materials do you have in stock for the current product?”*

*We’ll need data for rescheduling.”*

*“Wouldn’t that be an inconvenience for customers? How about doing it this way?”*

*You can feel energy and excitement in the greetings the members exchange with one another. The following meeting was filled with serious faces and sparkling eyes.*

Developing a best-selling product is a must for the survival of a company. Namyang Aloe was able to achieve growth and stand where it does today because it continuously launched numerous products, such as Alo-X Gold, ACTIVAloe, Namyang 931, Alomeg and Rament, that have enjoyed great popularity among customers.

Currently, this critically important task is handled by the New Product Development Committee (NPDC) (GATE operating system) and the New Product Development Subcommittee (NPDS). Within the NPDC, Namyang Aloe itself lays out product development directions, strategies and concepts. Within the NPDC, Namyang and Namyang Aloe have more detailed, working-level

discussions about the development of accessory materials, productivity, production schedules, inventory assessment and follow-up, order placement and warehousing & delivery.

The NPDS is composed of multiple teams and scrutinizes every issue concerning product development and launching in order to market the finest quality products on time. From Namyang Aloe, the BM Team, the Product Research Team, the Customer Support Team and the Management Support Team are involved in the subcommittee, while Namyang is represented by the Sales Team (Team Leader Jeongsu Ye and team members), the Research Office (Director Gyehwan Ahn), the Quality Innovation Team and the SCM Team.

The monthly NPDS meetings are held alternately at these two companies. At the meetings, details of product development are assessed and confirmed face-to-face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process. Of course, countless interactions take place via phone, e-mail and fax between meetings to discuss issues and take necessary actions. “The meetings are useful because matters that were not understood or resolved over the phone may be addressed quickly and details that were overlooked are identified in the meetings and applied to the work process right away,” said an NPDS member.

The activities of NPDS gained even greater importance after the spin-off in 2000. The group serves as an essential communication channel for product development between Namyang, which specializes in product manufacturing, and Namyang Aloe, which focuses on marketing and sales.

There are many other benefits to NPDS meetings. First, it allows a firsthand look at production lines so that findings can be incorporated in product development, which is very useful for linking customer opinions with product manufacturing. The outcome is customer-driven product development and production. In addition, NPDS contributes to building camaraderie among ECONETIANs. Regular meetings and face-to-face contact promote closeness and familiarity. Dinners and occasional drinks shared after the meetings further solidify bonding. As people working for common goals at different companies build greater friendship, the productivity of working together is further enhanced.

In order to step up such cooperation, the NPDS also plans events such as a joint workshop. These

serve as a great opportunity to promote teamwork among employees of the two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NPDS, and allow them to discuss direction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bilateral cooperation.



▼ 에코넷 웨스트의 현재 사옥  
Current Headquarters of the ECONET West

# 대도약의 발판 ECONET신사옥

글 - 에코넷 웨스트 홀딩스(구 유니베라) 부사장 겸 General Counsel 토마스 홀리안

일찍이 플라톤은 “모든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즉 시작이 좋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프로젝트이건, 시도이건 또는 예술 작품이건 간에 시작을 제대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을 내디딘 에코넷 웨스트는 플라톤의 말처럼 워싱턴 레이시의 “신사옥” 건설 작업에 착수함에 있어 계획대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현재 에코넷 웨스트 가족들은 총 37에이커 면적에 이르는 신사옥이 완공되기를 기다리며 임시로 마련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에코넷 웨스트의 신사옥은 약 10만 평방피트의 규모에 달하는 경영 본부 건물 그리고 그와 더불어 연구소, 강당, 트레이닝 센터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체육관 및 탁아소로 구성될 예정이다. 에코넷 웨스트 홀딩스(구 유니베라) 데렉 홀 부회장은 새로운 캠퍼스 설계 및 시공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하여 레이건 마일즈, 성한용, 피터 하퍼먼, 톰 홀리안으로 구성된 감독 위원회를 구성했다. 에코넷 웨스트는 감독 위원회의 현장 감독을 돕기 위해 프로젝트 매니저로 페이지 커크랜드(Page Kirkland Co.)를 영입했으며 페이지 커크랜드 미국 지사의 톰 블레이 사장이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다. 페이지 커크랜드는 에코넷 웨스트의 신사옥 건설 프로젝트 외에

도 현재 하이난 섬 스파 프로젝트도 맡고 있다.

페이지 커크랜드와의 계약 체결 후 데렉 홀 부회장은 “에코넷이 세계적인 기업인 것처럼 우리의 신사옥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신사옥은 모든 에코넷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시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끊임없이 에코넷과 인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커크랜드를 처음부터 우리의 프로젝트에 영입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건설될 신사옥을 통해서도 우리의 지역 사회와 에코넷 가족 그리고 고객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페이지 커크랜드 그룹(Page Kirkland Group LTD)의 쉐인 다시 이사는 계약 체결에 앞서 “우리는 에코넷 웨스트의 신사옥 건설 계획에 참여하여 최상의 자연을 인류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에코넷의 사명을 실현하는 환경친화적이며 질 높은 신사옥 건설에 일조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에코넷 신사옥 건설을 위한 새로운 시작의 첫 걸음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에코넷 웨스트의 “새로운 시작”의 다음 단계는 프로젝트 설계와 시공을 담당할 “설계시공 팀”을 영입하여 에코넷 이사회와 레이시 시의 승인을 거치는 것이다.



▲ 신사옥 감독 위원회 멤버들인 데렉 홀, 리간 마일즈, 톰 홀리안, 성한용 그리고 피터 하퍼먼 그리고 페이지 커크랜드의 쉐인 다시와 톰 블레이

Members of the New Campus Steering Committee, Derek Hall, Regan Miles, Tom Hoolihan, HY Sung and Peter Hafermann; and Shane D'Arcy and Tom Blair of Page Kirkland

▲ 에코넷 신사옥 개발 프로젝트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Econetwest CEO 겸 부회장 데렉 홀과 페이지 커크랜드의 쉐인 다시  
Derek Hall, CEO and Vice Chairman of ECONET West signs Project Management Agreement with Shane D'Arcy, Director of Page Kirkland for the New Campus for ECONET West.

## ECONET New Headquarters

By Thomas J. Hoolihan,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General Counsel, ECONET, Inc. (Formerly Univera)

When Plato wrote: “The beginning is chiefest part of any work” he recognized that when something is begun well, it has a much better chance of success than one that is begun poorly. By beginning properly and planning well, you increase your chances for success with any project, any endeavor or even, any work of art. Recently, ECONET West undertook the first step of a new beginning and, following the advice of Plato, it is planning well as it begins work on its “New Campus” in Lacey, Washington.

Currently, the ECONET West companies are in a temporary facility, awaiting the opportunity to begin work on its owned 37-acre New Campus. Initially, ECONET West will construct an administrative building of approximately 100,000 square feet. Thereafter, plans call for a research building, an auditorium and training center, and perhaps, a gym and day care center for use by employees. To oversee the planning and construction of the New Campus, Derek Hall has appointed a Steering Committee comprised of Regan Miles, H.Y. Sung, Peter Hafermann, Tom Hoolihan and himself. Regan Miles will chair the Steering Committee. To assist the Steering Committee on the day-to-day oversight of the construction of the New Campus, ECONET West has hired The Page Kirkland Co. as the Project Manager. Tom Blair, President of Page Kirkland's US operations, will be the Project Lead. Page Kirkland is the same company that

is Project Manager on the Hainan Island Spa Project.

After signing the Project Management contract with Page Kirkland, Derek Hall stated: “Just as the ECONET companies will be world class competitors, our New Campus will be a world class facility. It will be an environmentally friendly facility of which all of ECONET can be proud. With quality products, we make a statement every day in the marketplace about ourselves and our commitment to mankind. By bringing Page Kirkland into our project at the very beginning, we will ensure that our New Campus will make a similar statement to our community, our employees and our guests.” At the contract signing, Shane D'Arcy, Director of Page Kirkland Group LTD, said: “We are excited by the opportunity to help ECONET West plan and build an environmentally friendly, quality facility, consistent with ECONET's mission of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The next step in ECONET West's “New Beginning” is to hire a “design build” team that will present a project design plan for the approval of the ECONET Board of Directors and the City of Lacey. But the first step already has been taken in our new beginning on the journey to a New Campus and a new corporate home.



## 사우회! 알고 보면 돈 되요

글 - (주)남양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 최순미 대리 / 기자

“사우회?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본 적은 있지만 무심경하게 지나오다보니 사우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다들 잘 알지는 못한다. 아마도 사우회는 한두번 경조금을 신청한 기억으로 인해 경조금 신청부서쯤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다. 경조금 지급은 사우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지만 그 정도 지식으로는 충분치 않다. 알아두면 돈 되는 사우회 제대로 알아보자

### ♪ 사우회는 무슨일은 하나?

사우회는 상호부조와 친목 및 복리증진을 도모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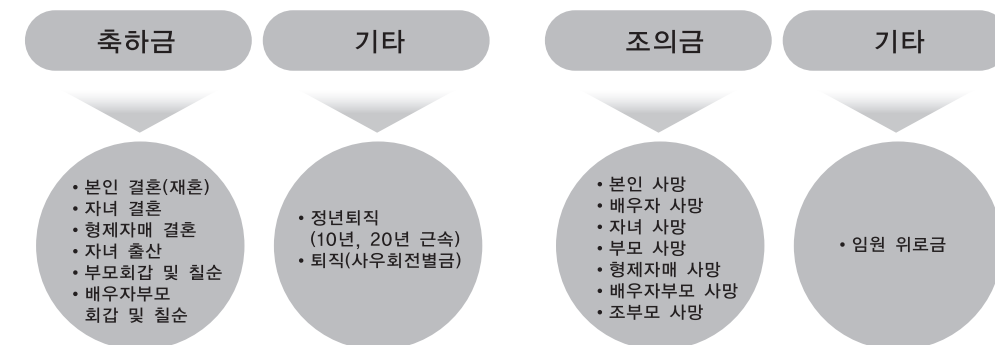
- 회원 경조비의 지원, 재해, 상병 기타 유고시 부조에 관한 일
- 근로자의날, 기념일, 명절에 사원들에게 선물 지급
- 직원 동호회 활동의 지원
- 퇴사 후 사우회 전별금 지급
- 500만원 한도 내 소액생활자금대출

### ♪ 사우회 어떻게 이용하나?

- 사우회의 경조금 신청 / 사우회 신청서와 구비 서류(해당 직원과 가족확인서:호적등본외)를 각사 임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 사우회 소액생활자금대출 /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우회 임원에게 제출한다

#### 사우회 경조금 지급기준

개정 : 1994년 3월 1일 기준



- 사우회는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최대한 적시에 처리가 되도록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임원진이 또한 겸직을 하고 있어 때로 양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 ♪ 사우회 기금관리는 어떻게 하고있나?

급여 명세서 공제란에 사우회비라고 또렷하게 쓰여져 매달 꼬박꼬박 공제되는 사우회비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회비는 수입, 지출로 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매년 결산을 실시한다. 이 결산자료는 매년 회원들 중에서 새롭게 선출되는 사우회 임원진이 인계받는다. 또한 회원의 퇴사시에는 내주신 회비를 모두 환원해 주고 있다.

### ♪ 2006년 사우회 임원진은 누구?

2006년도에 선출된 사우회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 회장에 남양 : 박상섭 과장
- 간사 : 표한중 대리
- 임원진 : 남양 김진영 대리, 박성수 사원, 김경섭 사원, 이용기 사원, (주)남양알로에 곽은정 대리, (주)유니젠 장미라 사원

1990년 12월 1일 “남양상조회”로 창립된 것이 시초이다. 이후 1994년 3월 1일부로 “사우회”라 칭했고 좀 더 사우를 위한 경조를 강화했다. 분사전에는 사우회 임원진이 가을마다 체육대회나 등산 등을 열어 회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3사가 같이 어울리기 어려워 각 사별로 볼링회나 미니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사우회 임원진단에서는 회원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릴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 우리의 에코넷 문화 코드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서”

## 서번트 리더십 테마 컬럼

글 - (주)남양 에코넷기업본부 인사팀 김남규 팀장



### 4월 서번트 리더십 테마 컬럼

서번트 리더십 테마는 기업문화코드의 이론적 배경으로 대두된 서번트 리더십에 대하여 월별 테마를 통해 조금씩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단지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에코넷 내부에 체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4월의 서번트 리더십 테마는 꿈의 대화입니다. 꿈의 대화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꿈, 즉 비전에 대하여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중장기적인 인생의 목표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더 많이 알 수 있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정리되지 않은 모

호함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전을 갖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사람은 더욱 흔치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런 사람들은 이미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거나 성공의 가도로 진행 중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성공사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위대한 인물들의 이면에 자리잡은 비전의 강력함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가슴 속에 숨겨둔 비전이 아니라 글로 쓴 비전의 강력함에 대해서입니다. 1953년 예일대 졸업반 학생 중에 글로 쓴 목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전체의 3%에 불과했습니다. 20년 후 이들을 조사한 결과 이 3%의 예일대 졸업생들은 글로 쓰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10%에 비해 20배, 30배의 부와 사회적 영향력을 구축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글로 쓰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중산층 10%와 거의 전혀 목표를 갖지 못한 서민층과의 격차

는 상대적으로 2배, 3배, 5배 정도의 차이에 그쳤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에서는 타인의 욕망이 아닌 욕구를 규명하고 이에 봉사하는 것을 통해 권위에 의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구를 규명하는 일은 서번트 리더십 발휘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목표가 없고 비전이 없다면 욕구는 규명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ECONET 기업문화의 핵심으로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것으로 정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꿈의 대화’는 또한 ECONET의 오랜 전통에 다름이 아닌 활동입니다. 이 4월의 테마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팀별로 또는 인원이 적은 곳에서는 본부별로 개인의 장기적인 목표를 그려보고 이에 대하여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 5월 서번트 리더십 테마 컬럼

5월의 서번트 리더십 테마는 목적(Purpose)의 공유 1단계인 ‘개인목적의 정의’입니다.

‘목적(Purpose)의 공유’라는 표현은 우리 에코넷의 기업문화 목표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실천해 왔는 지는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목적의 공유는 에코넷 EAST에 포함된 에코네시안들에게는 숨겨진 1인칭과 같습니다. 에코넷 EAST에서는 기업문화의 목표를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로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Where we share our dream, purpose and happiness together”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때문에 영어비전집을 읽어 보거나 기업문화코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EAST 소속의 에코네시안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어로 기업문화코드를 인지해온 WEST 소속의 에코네시안들에게도 Purpose를 공유한다는 것이 아주 쉬운 개념 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적은 어떤 행위를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삶을 살아

가는 이유’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의 핵심목적이 될 것입니다. 에코넷과 함께하는 것에도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개인이 에코넷과 관련하여 갖을 수 있는 핵심목적입니다. 에코넷은 에코넷의 핵심목적, 에코넷의 존재 이유로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목적을 공유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서로의 핵심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에코넷은 계속해서 자신의 목적을 수행해왔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그 목적을 더 잘 수행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수직계열화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에코네시안들은 더 좋은 작물을 더 잘 가꾸고,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더 값싸고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더 좋은 기획을 하고, 더 정확한 예산관리를 하고, 더 좋은 물류 및 판매시스템을 만드는 것 등을 통해 에코넷의 목적인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를 더 잘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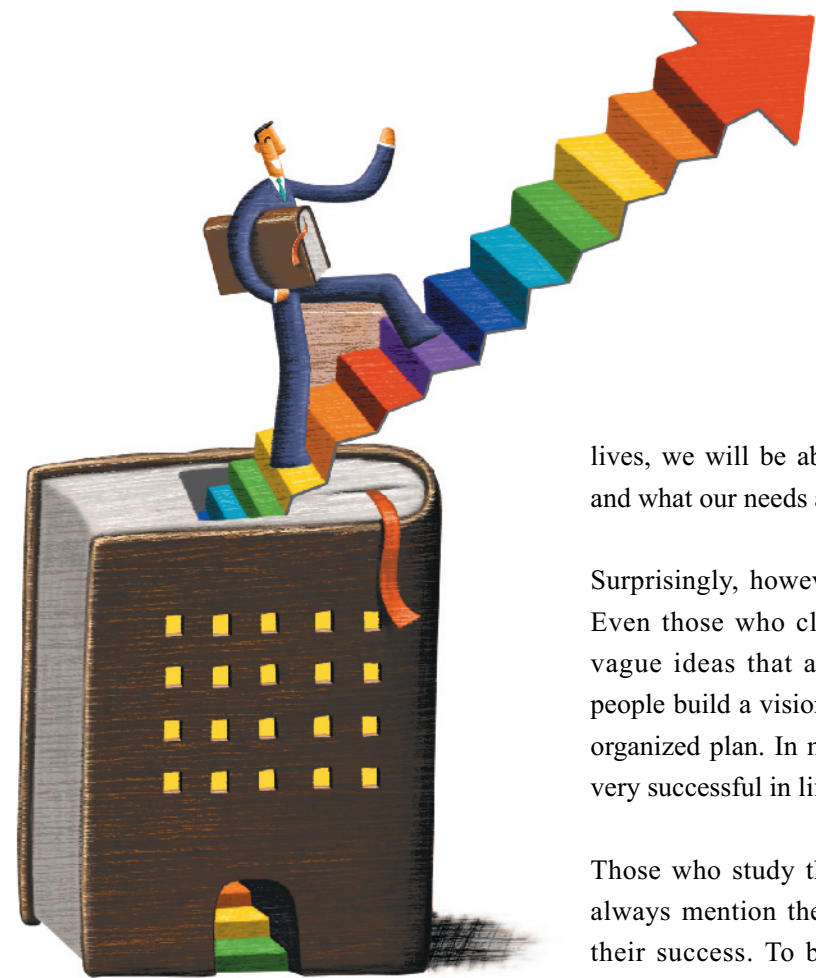
이 목적의 달성은 언제나 2% 부족함이 있습니다. 알로에에서 인류에게 좋은 물질 천만종을 찾아냈다고 해서 에코넷의 목적이 완전히 달성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 우리가 할일은 계속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거기에 끊임없이 다가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에코네시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목적도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에코넷의 핵심목적이 그러한 것처럼 여러 에코네시안의 핵심목적도 관리되고 달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핵심목적이 무엇인지 정의해 보셨는지요? 정의되지 않는 목적이 이뤄지고 있는 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은 에코넷과 함께 하며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까?” 이것을 정의하는 것이 5월의 서번트 리더십 테마입니다.

# Servant Leadership Theme Column

By ECONET Corporate Center Namkyu Kim



## April Servant Leadership Theme Column

Servant Leadership has emerged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our corporate culture, and we have established the “Servant Leadership Theme” to allow you to learn about servant leadership little by little through monthly themes. It is also designed to internalize servant leadership within ECONET through actual practice instead of mere theoretical study.

The Servant Leadership theme for April is “Sharing Dreams.” This is to create a chance to share one’s vision or dream with others. By having frank discussions about the mid- to long-term goals in our

lives, we will be able to better understand each other and what our needs are.

Surprisingly, however, not many people have vision. Even those who claim to have one often have only vague ideas that are not clearly defined. Very few people build a vision and realize it according to a well-organized plan. In most cases, such people are already very successful in life or are heading toward success.

Those who study the success stories of great people always mention the power of vision that lies behind their success. To be more exact, it is not about the vision tucked away in their minds but the power of vision put down in writing. A 1953 survey of Yale University graduates revealed that only three percent had their goals laid out in writing. When they were surveyed again 20 years later, this three percent had built 20-30 times more wealth and social influence than ten percent of those who did not have their goals in writing. According to this survey, the difference between ten percent of those who didn’t have their goals in writing and those who didn’t have any goals at all was only two to five times.

Servant leadership is based on a theory that leadership can be demonstrated through respect by identifying

others’ aspirations, and not yearnings, and rendering services for them. Therefore, defining one’s aspirations is an essential step in order to engage in servant leadership. However, aspirations cannot be defined if one does not have goals or vision.

We have already set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s & happiness together” as an integral part of ECONET corporate culture and exerted great efforts. “Sharing dreams” is an activity just like ECONET’s long tradition. In order to undertake this theme for April, each team (or division, if there are few staff members) needs to set aside time to draw up long-term goals and hold discussions on them.

## May Servant Leadership Theme Column

The Servant Leadership theme for May is “Defining a Personal core purpose,” which is the first step toward sharing purpose.

Although the expression “sharing purpose” is part of ECONET’s corporate culture and purpose, I wonder how serious we have been in actually practicing it. In fact, “sharing purpose” may be like a hidden inch to ECONETIANs belonging to ECONET East. The objective of ECONET East’s corporate culture literally means “a happy workplace where we share dreams.” In English, it has been translated as “Where we share dreams, purpose and happiness.” Therefore, this may be a very unfamiliar concept to the ECONETIANs of ECONET East who have not read a vision book in English or paid much attention to corporate culture codes. Moreover, even to the ECONETIANs of ECONET West who have been aware of the English version of corporate culture codes, sharing in a purpose doesn’t seem to be all that easy.

An purpose is a fundamental reason for engaging in a certain behavior. “A reason for living” may be a highest-level core purpose of a person. There will be a

fundamental reason for your being a part of ECONET. This also may be a core objective an individual may have in relation to ECONET. ECONET has defined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as its core purpose and a reason for its existence.

Sharing a purpose does not simply mean being aware of each other’s core purpose. ECONET has continued to work toward its purpose and tried to do it better through endless innovation. As a result, it was able to achieve vertical integration. Going forward, many ECONETIANs will contribute to better realizing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the ECONET mission, by cultivating higher quality crops in a better way, developing better products, manufacturing products cheaper and more efficiently, planning better, budgeting more accurately and establishing better distribution and sales systems.

We always fall short of achieving this purpose by two percent. Even if we identify ten million substances beneficial to mankind in an aloe, it still does not mean that the purpose of ECONET has been fully accomplished. Our task of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will still remain. We only continue to get close to the purpose.

Fellow ECONETIANs, what are your personal purpose? Do you manage your personal purpose in this way? Just as the core purpose of ECONET is managed and achieved, the core purpose of ECONETIANs should be managed and achieved. However, have you ever defined what your core purpose are? There is no way to assess whether an purpose is being realized without first defining it.

“What purpose do you plan to achieve through ECONET?” Defining an answer to this question is the May Servant Leadership theme.

## 광활한 영토에서 꿈을 일구는 만능 일꾼들의 집합소 유니젠 러시아 총무팀

글 – 유니젠 러시아 허영문 기자

러시아 농장의 광활한 대지는 그만큼이나 창창한 유니젠 러시아의 미래를 감추고 있다. 미개척지에 세운 농장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잠재력은 조만간 위대한 기업 에코넷의 지치지않는 엔진역할을 할 것이다. 유니젠-러시아 법인의 경영팀은 총무팀과 회계팀 크게 두개의 부서로 나뉘져있고 오늘 주인공은 4명으로 구성된 총무팀이다.

러시아는 급변하는 물결을 타고 깨어나고는 있지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때문에 사업기획 및 진행관리, 수/출입 관리, 인사관리, 구매 및 총무 등 4명의 만능 재주꾼으로 구성된 총무팀이 담당하는 일은 참으로 다양하다. 사업기획 및 진행관리는 유니젠 러시아 법인에 합류 5개월째를 넘기고 있는 허영문 대리가 맡아 유니젠-러시아 법인 업무 전체에 대한 계획과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수/출입 관리 및 대관청 업무를 포함한 마케팅은 알렉이 담당한다. 알렉의 열정과 책임감은 놀랍기 그지없다. 한번은 중국 훈춘으로부터 농장에서 필요한 종자를 반입하는 일이 있었다. 이 때, 알렉은 전혀 중국어를 하지 못하면서도 정해진 시간에 종자를 가지고 중국 국경을 통과하여 러시아로 반입하는 업무를 완벽히 수행해냈다.

초보사원 샤샤는 인사와 통역을 담당하고 있다. 아직은 회사 현황과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알렉은 어학에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다. 그는 영어에 능통하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국어도 수준급이다. 그래서 각종 보고서 및 문서의 번역과 손님 방문 시 통역은 그의 몫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알렌티노게비치는 항상 굳은 일을 맡고 이 수행한다. 오래도록 러시아 경찰에서 몸 담았던 알렌티노게비치는 성실함이 돋보이는 사원이다. 운전이 그의 주 업무이고 비품구매, 법인에 필요한 대외 구매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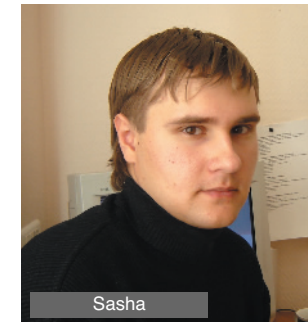
올해는 ECONET Phase II 단계로 성장이 화두이다. 우리 유니젠 러시아도 성장에 대하여많은 고민을 하고있다.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광활한 대지 위에 수 놓아질 유니젠러시아의 꿈과 땀의 결정체들은 새록새록 자라나고 있다. 그리고 곧 이 꿈들이 ECONET 가족들에게 멋진 작품으로 작품으로 자랑스럽게 드러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유니젠 러시아 총무팀은 오늘도 멋진 파이팅으로 내일을 다짐해본다.

## A Cluster of Talented Manpower Nurturing Dreams on a Broad Expanse of So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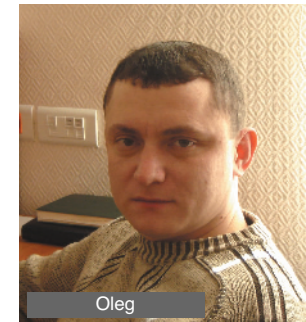
*Unigen-Russia General Affairs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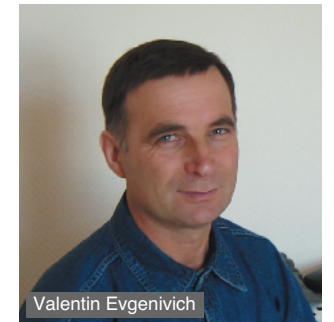
Youngmoon Heo



Sasha



Oleg



Valentin Evgenivich

Written by Youngmoon Heo, Assistant Manager, Unigen-Russia

In a vast expanse of fields on the Russian plantation, the future of Unigen-Russia, which is as broad as the land, is latent. The tremendous potential of this plantation set up on virgin soil will soon fuel the great company ECONET with inexhaustible power. The Unigen-Russia management team is generally divided into the General Affairs Team and the Accounting Team. Today, I'd like to introduce the General Affairs Team, which is staffed by four talented members.

Although waves of rapid changes are awakening Russia, it still lacks the infrastructure required to engage in business. As a result, the responsibilities carried out by the General Affairs Team staffed with four versatile players are truly diverse, including business planning, progress management, export/import affairs, personnel management, purchasing and general administration. Business planning and progress management are handled by Youngmoon, who joined Unigen-Russia about five months ago. He is managing planning and progress assessment for the general affairs of Unigen-Russia.

Export/import affairs, government affairs and marketing are all handled by Oleg. His passion and sense of responsibility are simply amazing. At one time, we had to bring in seeds required for the plantation from Hunchun, China. Although Oleg doesn't speak a word of Chinese, he flawlessly accomplished his mission to bring the seeds across the

Chinese border and into Russia on time.

Sasha, a new employee, is looking after personnel affairs and interpretation. He is still in the process of learning about the company and his responsibilities. Sasha is very adept with languages. He is fluent in English and also speaks Korean quite well, if not perfectly. He is naturally called on for the translation of various reports and documents and providing interpretation for visitors.

Last but not least, we have Alentinogevich, who silently performs all the difficult jobs. Having served in the Russian police force for a long time, Valentin Evgenivich is a man of integrity. His main responsibility is driving. He also provides assistance in the purchasing of equipment and other goods required by the company.

This year is part of ECONET's phase II, and the topic of conversation is growth. Unigen-Russia is also giving much thought to growth. Although they are still incomplete, the fruits of the dreams and toil of Unigen-Russia that will spread across the spacious land are growing day by day. We await the day when these dreams are proudly revealed to the ECONET family as a wonderful achievement. The Unigen-Russia General Affairs Team commits itself to the future with passion and enthusiasm today.



이번 호에는 에코넷 웨스트 홀딩스(구 유니베라) 행정담당 및 지역봉사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밥 풀턴**의 집을 방문하였다.

글 – Sang Sin ( Unigen , Accounting Manager / Econetway Reporter )

1)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이 참 아늑하네요. 직접 꾸미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아들이 셋인데다 각자가 개 한마리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멋있는” 것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왔을 때 환영받는 느낌, 편안한 느낌만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램이지요.

2) 다른 지역에서 사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지역에는 언제?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

1986년에 남편이 포트 루이스 (Ft. Lewis) 로 발령나면서 오게 됐습니다. 여기는 참 좋은 곳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존 재하고 경치가 아름다우며,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 곳이지요.

3) 가족을 에코네시안들에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

저는 아들이 셋입니다. 조슈아가 26살, 스카일러가 23 살, 그리고 엘라이가 13 살입니다. 또 제 딸과 다름없는 사라 (며느리)가 있으며 제 손자 제이슨이 있습니다.

4) 가족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

저는 주로 제 아들이 하는 운동경기를 보내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집에 함께 모일 때는 보드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지요. 또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5) 가족 생활 중 어떤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나요?

저는 어머니 역할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 다. 부모란 자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척 큰 책임이기도 하지요.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 자신이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분발하게 됩니다.

6)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어떤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또 어떤 것이 제일 불만일까요 ?

제 자식들은 제가 너무 자신들을 감싸려 들고 너무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자신들 을 항상 사랑할 것임을 알고 있지요.

7) 가족에 대해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요 ?

제가 자랑스럽게 느끼는 한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아들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8) 집이나 가족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가요 ?

매일매일 무언가가 바뀌긴 하겠지요.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큰 변화를 계획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과 집 과 이 동네에 만족합니다. 이 동네가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이웃에 여러 동료 에코네시안들이 살며 또 그들의 자녀들이 우리 아들과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것입니다.

9) 에코넷 웨스트 홀딩스(구 유니베라)에서 일하는 것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에코넷 컴퍼니에서 일하게 된것은 여러면으로 축복이었습니다. 이 그룹의 문화가 우리 집의 문화와 비슷해서 일하기가 무척 쉽습니다.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은 바로 제가 믿는 바이 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서는 정말 최고이고 마치 또 하나의 가족을 가진 것 같습니다.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밥 풀턴 Barb Fulton



# Barb Fulton

**ECONET, Inc. (Formerly Univera), Executive Administrative Assistant / Community Outreach Cordinator**

By Sang Sin, Unigen, Accounting Manager / Econetway Reporter

*1) Thank you for inviting me. This is a lovely house. Did you decorate this yourself ?*

Yes. Thank you. I have three sons and they each have a dog, so “fancy” isn’t my style. I just hope my home makes people feel welcome and comfortable.

*2) I know you’ve lived in other states. When did you move and what brought you here ?*

We moved here in 1986 because my sons’ father was stationed at Ft. Lewis. I think this is a wonderful area to live in because it is culturally diverse, beautiful and full of friendly people.

*3) Please introduce your family to fellow Econetnetians.*

I have three sons. Joshua is 26, Skyler is 23 and Eli is 13. I also have Sarah, the “daughter of my heart”, and my grandson, Jaden.

*4) What do you do when you spend time with your family ?*

I spend a lot of time at ballgames watching my sons play. When we’re home together we like to play board games and watch movies. We also enjoy having friends over to spend time with us.

*5) What makes you happy in family life?*

I love being a mom. I think it’s such a joy to see my children happy and successful at whatever they are doing. It is also a huge responsibility because I believe that parents have an obligation to lead by example and loving my children inspires me to be a better person each day.

*6) What do your sons appreciate about you and what’s their #1 complaint?*

My children think I’m too protective and that I ask too many questions, but they know without a doubt that I will always love them.



*7) What are you most proud of about your family ?*

The single thing I am most proud of is that my sons are loving to each other and kind to others they come into contact with.

*8 ) Any new plan for your home or family ?*

Some things may change from day to day, but we have no plans for any big changes in the near future. We are happy with our life, our home and our neighborhood. Of course, one of the things that makes my neighborhood so great is that there are several other Econetians who live very close by and my son goes to school with some of the children of the friends I have at work.

*9 ) How did it affect your life to work for ECONET, Inc. (Formerly Univera) ?*

Working in the ECONET family of companies has been a blessing in my life in many ways. The culture in this organization is so similar to the culture in our home that It makes it easy to work here. Being kind, serving others, and striving to make everyone successful are ideals I believe in and try to live by. My department is one of the best and it’s like having an extended family away from home.

*Thank you for your time with us.*

# 곽은정

(주)남양알로에 경영지원팀 곽은정 대리.

## 사람에게는 향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는 진한 사람 냄새가 배어납니다. 칭찬릴레이 여덟번째 주인공은 바로 남양알로에 경영지원팀 곽은정 대리입니다.

글 - 일곱번째 칭찬주인공 (주)남양알로에 중부영업팀 이규남 팀장



# 香氣

## 우리는 넘칠 때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땐 건강의 소중함을 자칫 잊고 삽니다. 조금 모자라고 아플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같은 부서를 떠난 지 5년의 세월이 부족 지났건만 오늘 그녀가 생각나는 건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께 어울리고 서로에게 채워주고 함께 나누고, 위로하면서 따뜻하게 살아가는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삶의 방법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성공적인 직장생활의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녀는 무엇보다 성실하고 투철한 책임감의 소유자입니다. 3년 넘게 카풀을 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번도 지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지독하게(?)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충실한 기본 지키기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나연 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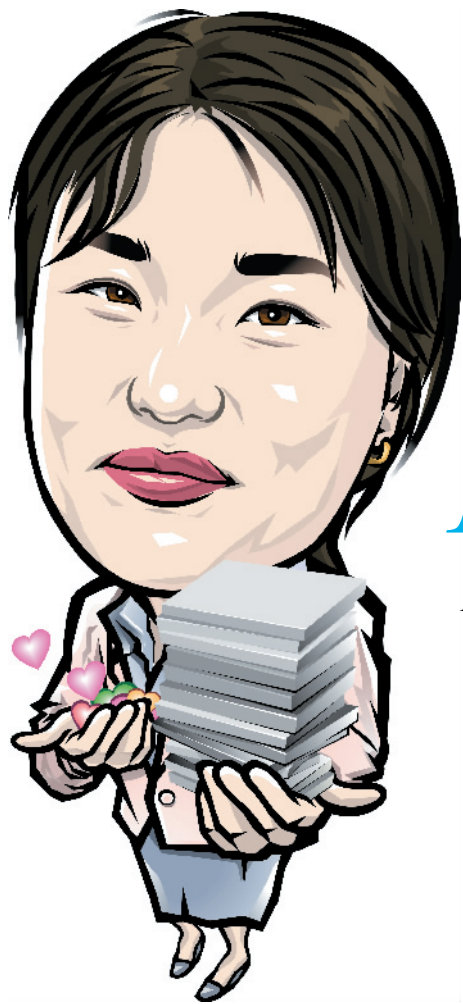
올해는 더욱 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 보여주시고 화목한 가정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에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자신이 존재하는 이 순간의 행복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그로 인해 주어진 행복의 의미를 200% 느끼며 사는 남자,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바로 표한중 주임 연구원이라 생각합니다. 분에 넘치는 칭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영향을 끼치는 에코네시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규남 팀장



아는사람들은 알겠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게 매월 한달에 한 번씩 직원들을 위해 준비하는 맥주파티도 그녀의 세심한 손길이 닿아있었습니다. 메뉴선정부터 세팅 그리고 뒷마무리까지 깨끗하게 준비된 음식들을 보면서 혹 “그거 당연한 것 아니야?”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것을 너무도 잘 해내기에 당연히 잘한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로 인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넘치는 웃음과 축복을 받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으로 가득하니까요.



# Eunjeong Kwak

*Management Support Team manager, Namyang Aloe*

## A person has one's own fragrance.

*She gives off a perfume of a human touch. I'd like to introduce to you Eunjeong Kwak, an assistant manager in the Management Support Team at Namyang Aloe and the 8<sup>th</sup> runner in a Relay of Praises.*

Written by Gyunam Lee, Jungbu SalesTeam Leader, Namyang Aloe

### *We don't realize when we have everything.*

When we are healthy, we forget the preciousness of good health. We painfully realize that we cannot get by without the help of others only when we lack something or when we are ill. It has already been five years since I worked with her in the same department. However, I think she keeps coming to mind today for that reason. I remember her as a person who practices an ordinary but valuable way of life by complimenting others, sharing with them, comforting them and warming their hearts.

There are many virtues for a successful career person. Above all, she is faithful and has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I car-pooled with her for over three years and she was never late, even when it rained or snowed. In observing her very sincere attitude, I was able to learn a lot. I believe Eun-jeong, whose attractiveness is further increased by her rigorous insistence on the basics, can set a great example for many others.

Some of you may already know, but the monthly employee beer parties are made possible by her caring behind-the-scenes work. From the carefully selected menu to the setting of the tables and the clean up at the end, some may take it for granted. However, often things that are taken for granted are not actually easy to do. I'd like to give her the praise and compliments she so very much deserves for doing things taken for granted so well. Thanks to her, those around her forget about everything and enjoy laughter and pleasant times instead. She fills their days with happiness.

### *Eunjeong!*

*I wish great happiness and health to you as well as your family this year.*

*I believe true happiness is not a goal that you achieve in the distant future; it's about feeling happiness in this very moment you are living as it is. A man who does his best in the situation in which he finds himself, who appreciates the significance of happiness 200% in every moment and who makes those around him happy as well... this is none other than Senior Researcher Hanjong Pyo. I am truly grateful for his high praise, which is much more than I deserve. I will do my best to become an ECONETIAN who has a positive influence on others.*

*- Gyunam Lee*





## 메이 홍 미국 유니젠

### 조용하면서도 헌신적인 에코넷 가족 메이 홍

메이 홍이 하루라도 연구실을 비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그녀의 지식과 회사에 대한 헌신에는 전 에코넷 가족이 감탄합니다.

글 - 유니젠 미국 지푸 자오 박사

유니젠의 천연제품 사업부는 매우 독자적이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천연제품 연구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오아시스를 처음 접해보는 회원들 뿐 아니라 사업차 유니젠을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들도 유니젠의 정교하면서도 단순한 시스템의 운영 방식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객들에게 하는 간략한 설명을 통해서도 이 시스템을 내부 이론을 다 알리기가 어렵습니다.

유니젠의 천연 제품 시스템은 유니젠의 최고 과학 담당자인 치 지아 박사로 인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매일의 운영, 비판적

인 사고와 열정 그리고 노력은 유니젠 USA의 천연 제품 화학자인 메이 홍씨가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아 박사가 엔지니어 겸 디자이너인 반면 메이 홍은 저 같은 동료 과학자들이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 벽돌을 하나 하나 옮겨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하는 숙련된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이 홍을 비롯한 천연 제품 연구소의 직원들은 천연 제품 시스템을 유지, 개발하기 위해 끊임 없는 일상적 작업을 반복하고 있으며 세계적 식물 컬렉션의 유지와 확장 및 지표 기반의 식물 선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 대학 및 기관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 세관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 식물 분류, 등록, 데이터 관리, 네임, 레이블, 보증 확인서, 샘플 보관, 분쇄, OE 및 AE 추출법의 발전, 증발, 고속 진공 건조, 냉동 동결 건조, 샘플 중량 측정, 생산량 측정, 데이터 입력, 샘플 용해, 컬럼 적재, 정제법 개발 및 분류 등과 관련된 엄격한 지침을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함께 이루어 지도록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실 직원들은 20개가 넘는 주요한 장비의 관리와 고장 수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메이 홍은 이런 천연 제품 연구소의 성공적인 운영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물입니다.

메이 홍은 1998년 유니젠 USA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기술과 유니젠에 대한 충성도는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메이 홍이 없이는 유니젠의 천연 제품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시간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메이 홍이 하루라도 연구실을 비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그녀의 지식과 회사에 대한 헌신에는 전 에코넷 가족이 감탄합니다.

메이 홍은 연구실의 곳은 업무 외에 항암검사 프로젝트도 맡아 왔는데 이는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반복적인 샘플 준비와 혼합물 분별 작업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우리는 메이 홍 덕분에 지난 3년 동안 15개 이상의 활성 항암 혼합물 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 메이 홍은 또한 바이쿠출 생산법, 즉 6-MBOA 프로젝트를 완료했으며 이 외에도 콜게이트를 위한 마그놀리아 추출물의 화합 성분, 유니베스틴의 치약 안정성에 관한 연구 및 기타 품질 관리를 위한 분석 방법 개발에 참여해왔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프로젝트를 양질의 작업 및 효과적인 시간과 자원 관리에 중점을 두고 성공히 마쳤습니다.

메이 홍은 근면한 과학자이며, 장비 관리 및 문제 해결에 능숙하며, 연구실 업무를 조리있게 운영해나가며, 성실한 조력자이자 훌륭한 팀원이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소프트웨어 전문가이자 현대적인 색층분석 기술 전문가입니다.

그녀는 연구실에서 휴가를 받으면 주로 책을 읽거나 덴버 프론트 레인지 대학의 교수로 재직중인 남편 용 탕씨와 시간을 보냅니다.

본 기사의 수정 작업을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신 케시 마컴씨에게 감사드립니다.





# Mei Hong

Unigen USA

*Mei Hong: the quiet, steady commitment of one*  
*We need her in the laboratory every day. Her knowledge and commitment are well- respected and admired throughout the entire ECONET family*

Written by Jifu Zaho, Unigen USA

The Natural Products department at Unigen has developed a unique, highly technological and well-maintained natural products study system. Associates new to Oasis, as well as Unigen’s many business visitors are somewhat surprised with the system’s sophisticated, yet simple methodology. It is challenging to convey its inner rationale during the brief overview our visitors receive.

Design of the Natural Products system is the creation of Dr. Qi Jia, PhD, Unigen’s Chief Scientific Officer. However, the actual daily implementation, critical thinking, passion and hard work supporting that creation belongs to Mei Hong, a natural products chemist at Unigen USA. While Dr. Jia is the engineer and designer, Mei is the skilled worker, moving every piece of concrete block to lay out a firm foundation for other

scientists, like me, to build strong product structures.

Mei and other members of the Natural Products laboratory team are responsible for an endless array of daily jobs that sustain and continue to develop the natural products system. Focus is on maintaining and expanding our worldwide plant collection, action and indication-based plant selection. Key to this success is development of collaboration with foreign colleges and institutes. Also critical is the department’s interaction with U.S. Customs and compliance with strict guidelines established for such areas as plant sorting, registration, database management, naming, labeling, identification of voucher, sample retaining, grinding, evolution of OE and AE extraction methods, evaporation, speed-vacuum drying, freeze-drying, sample weighing, yield calculation, database inputting, tough sample dissolving,

column loading, purification method developments, and fractionation. All of which is done while monitoring space efficient storage. The lab staff is also responsible for maintenance and troubleshooting of more than 20 major pieces of equipment. Mei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Natural Products laboratory.

Mei began working for Unigen USA in 1998. Her skill and loyalty are immeasurable. Time has proven that the Natural Products department simply cannot function without her. We need her in the laboratory every day. Her knowledge and commitment are well- respected and admired throughout the entire ECONET family.

In addition to her laboratory ‘housekeeping’ jobs, Mei has been responsible for the anti-tumor compound-screening project, which is challenging and requires a great deal of precise, tedious sample preparation and compound fractionation. Due to Mei’s hard work, more than 15 active anti-tumor compounds have been discovered in the past three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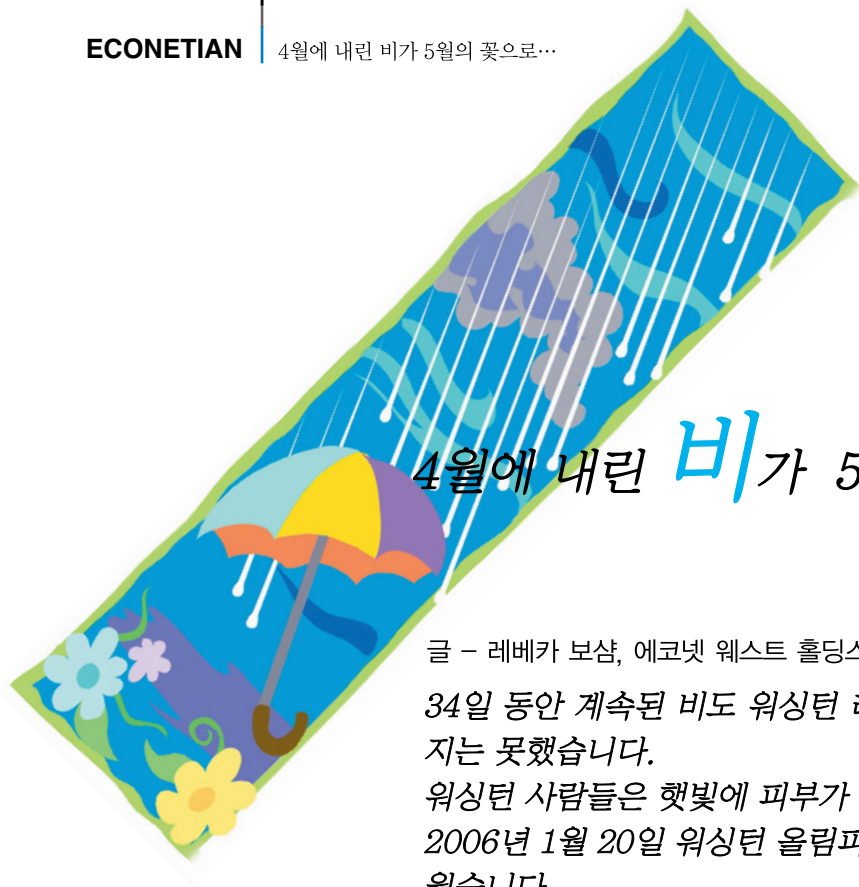
In the last four years, Mei also completed the projects of Baicuchol production method, 6-MBOA, Minor compound in Magnolia extract for Colgate, the stability study of Univestin in toothpaste and several analytical method developments for quality control purpose. All projects were finished with emphasis on high quality of work and efficient management of time and resources.

Overall, Mei is a hard working scientist, skilled at equipment maintenance and troubleshooting, well-organized in the lab, a busy helper, strong team member, specialized in Microsoft office software and a modern chromatography technology expert.

When Mei takes time off from working in the lab, she likes reading books and enjoys spending time with her husband, Yong Tang, a college professor at Front Range College in Denver.

The author thanks Ms. Kathy Markham for her spending time to revise this article





4월에 내린 비가 5월의 꽃으로 돌아오다.

글 - 레베카 보샴, 에코넷 웨스트 홀딩스(구 유니베라), 법률 코디네이터

34일 동안 계속된 비도 워싱턴 레이스의 에코넷 가족들의 열정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워싱턴 사람들은 햇빛에 피부가 타는 대신 비에 녹이 손드립니다!

2006년 1월 20일 워싱턴 올림피아는 34일 연속 비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순간에도 워싱턴에는 비가 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 April Showers Bring May Flowers.

By Rebecca Beauchamp, ECONET, Inc. (Formerly Univera), Compliance Coordinator

*Employees in Lacey WA got a little silly to show that even 34 Consecutive Days of Rain haven't dampened their Econet Enthusiasm.*

*People in Washington don't tan - they rust!*

*January 20, 2006 - Olympia WA Breaks Record! 34 Consecutive Days of Rain.*

*Who knows? It may still be raining at the time you're reading this.*



# 가족 전통 家族傳統

화목한 가정 환경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 중 사랑만큼 값진 것이 또 있을까?

글 - 데렉 홀 부사장겸 CEO / 에코넷 웨스트 홀딩스(구 유니베라)



▲ 카리브해 크루즈 여행에 나선 데릭 홀과 그의 가족 (2006년 2월)  
Derek Shelby with children on a Carribean Cruise Feb 2006

우리는 일에 파묻혀 살아가거나 더 나아가서는 인생에 궁극적으로 수반되는 물질적인 요소들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다.

미국인으로서 나는 아시아의 문화와 그들이 삶의 전통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인들에게 전통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아시아인들만큼 전통을 강조하지 않고, 그래서 그 또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까 봐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전통은 삶의 가치를 확립시키는 기반이 되고 삶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 지를 깨닫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미 기념하고 있는 생일, 기념일, 그리고 기타 역사적인 사건들 외에 더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가족의 전통이다.

가족의 전통은 일생을 통해 지속되고 세대를 통해 이어지며 일기 및 전기 등으로 기록되어 모든 사람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가족 전통에 대한 잊지 못할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부모님은 크리스마스와 여름 휴가를 집안의 전통으로 만드셨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때의 추억은 나로 하여금 형제, 자매와 보낸 매우 소중한 시간을 떠올리게 한다.

아내와 나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집만의 몇 가지 전통을 세웠는데 그 전통이 지금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이어진 것을 보며 매우 뿌듯함을 느낀다. 우리의 자손이 인생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지켜보는 일 보다 더 값진 것이 또 있을까?

남양알로에의 3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고 4월 5일 이라는 에코넷의 전통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후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개인적이며 가족적인 전통을 세우기를 희망해본다.

## Family Traditions

*There is nothing in life that quite equals the love that develops within a healthy and wholesome family unit-such love can endure most anything-or can it?*

By Derek Hall Vice Chairman and CEO / ECONET, Inc. (Formerly Univera)

As each of us add years to our lives we quite easily become immersed in our pursuit of a career and then further distracted by the trappings which ultimately accompany our life's path.

As an American I am impressed by the Asian culture and the emphasis it places on tradition in our lives-that's not to say that Americans don't have traditions, we most certainly do, however with less emphasis, and I'm afraid even that will lessen over time.

Traditions are important in our lives in that they provide for us an anchor to which we can tie our values; traditions also cause us to recognize that which is truly important in our lives.

We traditionally recognize birthdays, anniversaries, memorials and other historical events but I would submit to you that there are traditions that are much more important and much more impactful than any of these; what I am referring to are those plain and simple family traditions.

Family traditions endure a lifetime. They pas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they are recorded in diaries and biographies for all to read and enj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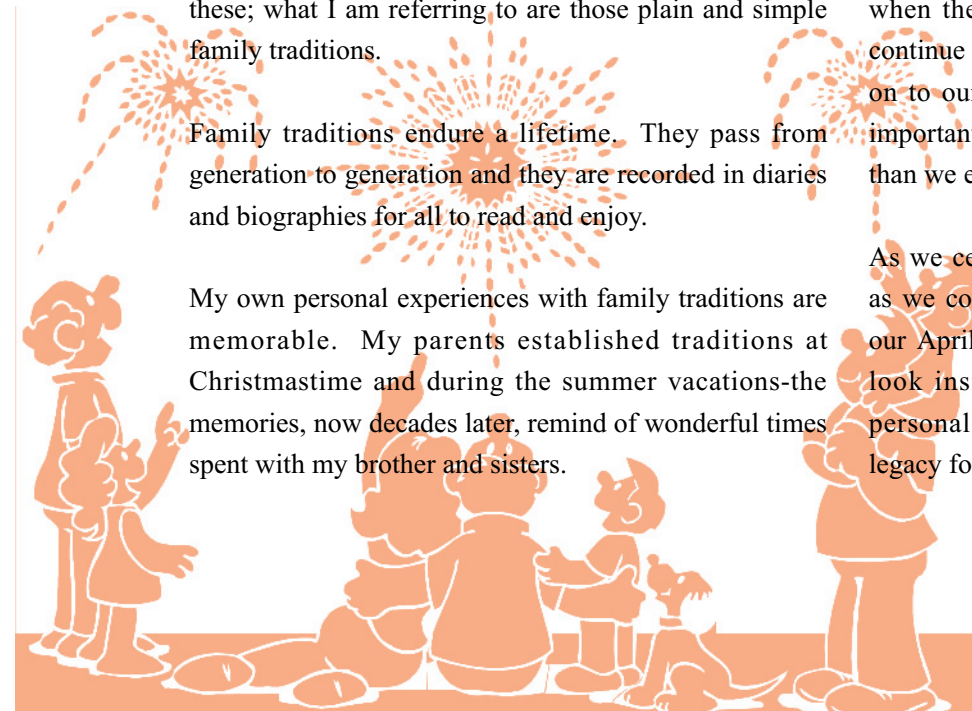
My own personal experiences with family traditions are memorable. My parents established traditions at Christmastime and during the summer vacations-the memories, now decades later, remind of wonderful times spent with my brother and sisters.



▲ 자마йка 열대림 카노피 투어에서 허공의 'zip line'에 매달려 있는 데릭 홀 (2006년 2월)  
Derek Hall on a zip line high above the Jamaican Rainforest Canopy - Feb 2006

My wife and I established traditions with our children when they were very little and those same traditions continue to bring joy to us as we now see them passed on to our grand children?can there be anything more important than to see our posterity enjoy all and more than we enjoy?

As we celebrate Namyang Aloe's 30<sup>th</sup> Anniversary and as we continue the ECONET tradition of remembering our April 5<sup>th</sup> tradition, it is my hope that we will each look inside our homes and establish our very own personal and family traditions that will become our legacy for years to come.



# 병천 순대 맛보러 오세요!

글 - (주)유니젠 재경인사팀 장미라 기자



유니젠 한국은 충남 천안의 병천에 위치해 있다. 평범하고 조용하게만 보이는 이 작은 마을은 우리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이기도 하다. 병천의 순 우리말은 ‘아우내’로 3·1 만세의 횃불이 활활 타올랐던 역사적 현장 아우내 장터가 있다. 유관순 열사의 조국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내 나라를 다시 찾겠다는 갑남을녀들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되어 독립 만세로 타올랐던 곳이다. 현재에도 병천장이라는 이름으로 5일장이 열리고 있다.

병천은 또한 서양의 소시지와 비슷한 한국고유의 음식 ‘순대’로 잘 알려져 있는 고장이다. 병천의 순대가 유명해 진 것은 45년 전 아우내 장날에 몰려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충남집과 청화집이 처음 순댓국집을 열면서부터이다. 이제는 조그마한 동네 전체가 순대 일색인 모습으로 누구나 원조라는 간판을 달고 장사를 한다.

아우내 장터의 순대촌은 너럭한 충청도 인심과 함께 담백하고 고소한 순대가 특징이다.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순대촌에서 손꼽히는 몇 곳의 맛집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부부순대” 기자가 가장 추천하는 집이다. 점심시간이면 앞



을 틈이 없는 이집은 동네 사람들도 찾아가서 먹는다고 하는데 다른 순대에 비해 씹히는 맛이 부드럽고 깔끔하며 자칫 느끼할 수 있는 병천순대의 특징을 벗어버린 그 맛이 일품이며 특허까지 받았다는 점이 특징이랄 수 있다. 다른 순대집들이 늦게까지 장사를 하는 반면 부부순대집의 순대는 늘 일찍 품절이 되는 이유로 다른 집들보다 문을 일찍 닫아 이 집의 순대를 맛보기 위해서는 조금 일찍 찾아가야만 한다.

“청화집” 진짜 원조 집이라고 불리우는 청화집의 순대는 원조답게 진한 맛과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듯 순수한 순대와 순대국밥을 맛 볼 수가 있다.

“대가순대” 대가 순대집은 맛보다는 한국의 탑스타인 이효리씨의 고모님께서 운영하며 한 때 메스컴에 오르내리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대가순대 일큰하고 담백한 순대국밥으로 추천 맛집의 하나로 꼽혔다.

수많은 원조 병천순대집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도 손 꼽히는 이들 순대집에서 그 진수를 맛보시라. 왜 병천 순대가 순대역사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An Invitation to Byeongcheon to Sample Sundae!

Written by Mira Jang, HR/Accounting Team, Unigen Korea

Unigen Korea is based in Byeongcheon, near Cheonan in Chungcheongnam-do. Although this small town may appear uneventful and quiet, it was once the site of a monumental event in Korean history. In pure Korean, Byeongcheon is called Aunae and Aunae Market, a historical site where the torch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was ignited on March 1, 1919, is located within the town. This is the place where patriot Kwansun Yoo's fervent passion for her country and the earnest desire of youths to regain their country's independence were united and sublimated into the Independence Movement. Today, a traditional marketplace called Byeongcheonjang still opens every five days.

Byeongcheon is also famous for the unique Korean food sundae, which is quite similar to sausage. Byeongcheon sundae became famous when restaurants Chungnamjip and Cheonghwajip first began serving sundae soup with rice to shoppers in Aunae Market 45 years ago. Today, sundae places have popped up all over this small town and every restaurant claims to be one of the original vendors.

The sundae village in Aunae Market features non-greasy and savory sundae and warmhearted Chungcheong-do people. The following are a few restaurants that are considered the best of the best, even in this nationally renowned sundae town.

“Bubu Sundae” - This is my number one choice. The place

is usually packed and it is difficult to get a table at lunchtime. Local residents are also known to come to this place to enjoy sundae. Compared to sundae served by other places, Bubu Sundae's dish is tender and light and does not have the greasy taste sometimes found in Byeongcheon sundae. It really tastes fantastic. In fact, its recipe is patented! While other sundae restaurants are open until late at night, this place closes earlier than others because it is sold out of sundae. Therefore, to enjoy sundae at Bubu Sundae you'll need to get there early.

“Cheonghwajip” - This place is regarded as an authentic original vendor. In keeping with its fame, the sundae served at this place has a strong, hearty flavor. You can experience genuine sundae and sundae soup with rice here.

“Daega Sundae” - Daega Sundae became famous because of its owner rather than its food; the owner is an aunt of Hyori Lee, a superstar in Korea. This place is selected as one of the best thanks to its spicy and non-greasy sundae soup with rice.

Enjoy the authentic flavor of sundae at these places, the best of the best in Byeongcheon, which is filled with numerous original sundae restaurants. You'll understand why Byeongcheon sundae is central to the history of sundae.



글 - 교육부 교육기획팀 대리 송은주 기자

웰빙시대를 맞아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여러가지 운동법이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운동이라면 쉽게 실행으로 옮기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전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등산은 비용걱정없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고 그 효과도 뛰어나다. 완벽한 S라인의 몸매를 소유하고 있다는 가수 이효리도 등산 예찬론자로 알려져 있다. “등산을 하면 군살이 빠지면서도 몸매가 탄탄하게 유지돼 몸매 관리에는 더할 나위 없다.” 고 그녀는 이야기 한다.

등산은 걷기, 달리기와 더불어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다. 등산을 하면 호흡, 순환계를 활성화 해 산소 섭취량을 늘려 준다. 9Kg 의 배낭을 메고 경사진 산을 오를

경우 휴식 시의 8.8배에 이르는 운동량과 산소량이 필요하다 고 한다. 산을 내려올 때도 휴식 시 운동량과 산소량의 5.7배 정도를 필요로 한다. 등산을 하면서 산림욕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등산은 운동강도가 지나치게 신체 부담을 주지 않으며 신체밸런스를 갖추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근육운동 강도면에서 등산은 걷기보다는 세며 달리기보다는 약한 편이다. 걷거나 달리기 평지에서 주로 이루어 지는 반면 등산은 평지가 아닌 독특한 지형을 무대로 하여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해 지나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근육을 쓰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선 요통을 예방하고 치하는 데 효과적인 운동으로 등산을 추천하고 있다. 허리 근육을 길러주며 척추뼈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등산으로 건강 효과를 보면서 더불어 S라인 몸매를 갖고 싶다면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

등산은 훌륭한 운동이지만 건강한 관절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다. 등산을 할 때는 특히 내리막에서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등산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 특히 발목, 무릎, 허리등의 관절을 충분히 풀어줘야 한다.

올 4월에는 활기찬 등산, 건강한 관절을 위해 신제품 리제니케어·K<sup>TM</sup>가 출시된다. 리제니케어·K<sup>TM</sup>는 관절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으로 국내 유일의 천연 식물 원료 제품으로 관절건강기능 식품으로 식약청의 개별인정을 획득한 제품이다. 또한 임상실험을 통해 한국인의 관절기능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리제니케어·K<sup>TM</sup>는 뻣뻣하고 시린 관절을 편안하고 부드럽게 해준다. 리제니케어·K<sup>TM</sup>를 통해 편안하고 부드러운 관절을 얻고 꾸준한 등산을 통해 멋진 몸매에 도전해 보자.

## Getting into Shape? Let's go Hiking!

By Natalie Song, Assistant Manager / Education Planning Team / Education Division / Namyangaloe

These days well-being has become a buzzword, which is accompanied by an increasing interest in health and the introduction of various new forms of exercise. However, it can be difficult to exercise when sports are too costly. Unless you want to become a professional mountaineer, you can easily enjoy hiking in the mountains at a relatively low cost. Its benefits are also known to be quite wonderful. Hyori Lee, a popular singer famous for her perfect, curvy body, is also a great fan of mountaineering. Hyori once said, “Mountaineering helps me work off fat and stay in shape. It’s a perfect way to maintain my figure.”

Along with walking and running, mountaineering is a well-known aerobic exercise. Hiking strengthens the respiratory and circulatory systems and increases oxygen intake. Hiking up a mountain carrying a 9-kg backpack requires 8.8 times more energy and oxygen than when the body is at rest. Even descending a mountain requires 5.7 times more energy and oxygen. Another attractive benefit of mountaineering is that you can immerse yourself in nature at the same time.

Mountaineering is a sport that helps you maintain your balance without putting too much stress on your body. In terms of muscle use, it is more intense than walking but milder than running. While walking or running is usually done on level ground, mountain hiking involves a series of ascents and descents based on the unique shape of the ground. It therefore involves the use of a much more diverse group of muscle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commends mountaineering as a sport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back pain. It helps build back muscles and strengthens the spine. However, if you want to stay healthy and in shape through hiking, you need to become a regular mountaineer.

Although mountaineering is a wonderful sport, it requires healthy joints. Descending a slope may put stress on your joints. Therefore, be sure to stretch well before climbing, especially the ankles, knees and waist.

RegeniCARE·K<sup>TM</sup>, a new product for energetic mountaineers and healthy joints, will be launched in April. It is a functional health supplement for joint care. As Korea’s only joint care product sourced from natural plants, it has acquired individual certification from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 clinical study has also confirmed that it significantly improves joints’ functions.

RegeniCARE·K<sup>TM</sup>, eases stiffness and pain and promotes comfort and ease in joints. Ensure comfortable and healthy joints with RegeniCARE·K<sup>TM</sup>, and work toward keeping fit through mountaineering.



## 알림 Announcement

# 社告

에코넷 웨이에 표기되는 각사의 명칭이 변경됩니다.

1. 이번호(Vol.013)부터 변경되는 사항  
ECONET WEST의 홀딩 컴퍼니인 유니베라(Univera)의 사명이 ECONET, Inc.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표기되던 ECONET WEST의 홀딩컴퍼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 표기합니다.

◆ 유니베라(Univera) ⇨ 에코넷 웨스트 홀딩스(구 유니베라)

2. 다음호(Vol.014)부터 변경되는 사항  
4월 5일에 남양알로에의 사명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5일 발행되는 에코넷웨이 Vol. 014호부터는 남양알로에와 오아시스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 표기합니다.

◆ 한국 (주)남양알로에 ⇨ 유니베라 한국

에코넷웨이 편집

팀

The company names used in ECONET Way have been changed.

### 1. Change beginning this issue (Vol. 013)

Univera, ECONET WEST's holding company, has been renamed ECONET, Inc. Accordingly, the name of ECONET WEST's holding company appears as follows in this issue.

◆ Univera ⇨ ECONET, Inc. (Formerly Univera)

### 2. Changes beginning next issue (Vol. 014)

Namyang Aloe is scheduled to be renamed on April 5. Accordingly, Namyang Aloe will appear as follows beginning with ECONET Way Vol. 014, which is scheduled to be published on June 5.

◆ Korea / Namyang Aloe ⇨ Univera Korea

ECONET Way Editorial Desk

## 1 팀장 서번트 리더십 워크샵



에코넷 EAST의 3사에서는 스튜어트 회장과 짐 엠리치 박사의 주도하에 서번트 리더십 교육 및 워크샵을 2월 7일~8일 양일간 에코넷 센터에서 실시하였다.

에코넷의 3사 임원 및 팀장이 한자리에 모인 2월 7일 워크샵에서는 지난 중국 캠프워크샵에서 어렵게 인식했던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전문가의 지도아래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연호 회장님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서번트리더의 자질과 함께 소개되어 이것이 이미 오래된 에코넷의 전통임을 재확인 시켰다.

8일 워크샵은 서번트 리더십 트레이너와 서번트 리더십관련 정책 추진 담당자들이 모여 회사 전체에 서번트 리더십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3/21일 시애틀에서 EAST/WEST의 서번트리더십 정책담당자간의 2차 회의를 결정했다.

한편, 스튜어트 회장은 CCO(Chief Cultural Officer)로 선정되어 에코넷 전체의 기업문화 및 서번트 리더십 정책을 총괄하게 됐다.

## Servant Leadership Workshop for Team Leaders



Under the leadership of Stuart Ochiltree (Chairman of the Board, Oasis) and Dr. Jim Emrich, three ECONET EAST companies held a Servant Leadership Training Session and Workshop at ECONET Center in Seoul on February 7 & 8, 2006.

The Feb. 7 workshop was attended by the executives and team leaders of three ECONET companies. It was an opportunity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servant leadership, to which they were introduced in the camp workshop on Hainan Island last year, under professional guidance. In addition, various examples set by the late Chairman Yunho Lee were introduced along with the qualities of servant leaders, which confirmed that servant leadership is already a long-standing ECONET tradition.

In the workshop held on February 8, servant leadership trainers and servant leadership-related policy managers gathered together to discuss ways to institutionalize a servant leadership culture across the companies. They also decided to hold the second meeting of servant leadership managers from ECONET EAST and WEST in Seattle on March 21.

Meanwhile, Stuart Ochiltree was appointed Chief Cultural Officer (CCO) and placed in charge of

the corporate culture and servant leadership policies of all of ECONET.

## 2 2006 승진자교육



작년 대리 및 과,차,부장으로 입사한 경력사원과 올해 1월 승진한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5일 ~ 17일까지 승진자 교육이 실시됐다. 대리 승진자들은 3박 4일간, 과,차,부장 승진자들은 2박 3일간 신세계 유통연수원에서 오전9시부터 저녁10시까지 강도높은 교육으로 새로운 역할 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대리 교육은 차세대 리더로서의 소양과 업무수행의 전문화를 위한 강좌로 구성이 되었고, 과,차,부장 교육은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리더십에 중점을 두어 교육이 진행되었다.

연수원 교육을 마치고 마지막날은 봉사활동 시간을 가졌다. 대리 승진자들은 한사랑 마을 중증장애아요양시설, 과,차,부장 승진자들은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하여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에코넷 가족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돌아왔다.

한편 전 OB베어스 투수였던 불사조 박철순 투수가 특강을 맡아 그의 불굴의 의지와 도전적인 삶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수업 후에 자연스럽게 사인회로 이어져 그의 식지 않은 인기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 Training for Managers Promoted in 2006

A training program was held from February 15 through 17 for experienced new hires who joined ECONET last year as assistant managers, managers, deputy senior managers and senior



managers and for those who were promoted in January this year. Through an intensive training session at Shinsegae Distribution Training Center that began at 9:00 a.m. and continued until 10:00 p.m., new assistant managers (4 days) and new managers/deputy senior managers/senior managers (3 days) completed their preparation to take on new roles and responsibilities. The training program for assistant managers consisted of lectures on the necessary knowledge and qualities for next-generation leaders and the specialization of their functions. Training sessions for managers, deputy senior managers and senior managers focused on the leadership required of management.

On the final day of the training program, trainees donated some time for volunteer work. New assistant managers went to Hansarang Village, a facility for severely disabled children, and new managers, deputy senior managers and senior managers visited Seongdong-gu Dongbu Municipal Nursing Home to share the compassion of ECONET families with those in need.

Meanwhile, Cheolsun Park, a legendary former pitcher with the OB Bears, was invited to give a special lecture and shared his determination and struggles with trainees. After the lecture, the session naturally turned into an occasion to get his autograph, which confirmed his enduring popularity.

## (주)남양알로에 / Namyang Aloe

### 3 남양알로에의 새이름 UNIVERA(유니베라)



변화하는 시장환경은 물론 글로벌 기업으로써의 면모를 나타내게 될 남양알로에의 새로운 사명이 UNIVERA(유니베라)로 결정되었다. 4월 5일 창립 기념일로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시장에 등장하게 된다. UNIVERA(유니베라)는 선대 회장님이신 고 이연호 회장님께서 친히 지으신 이름이다.

### A New Name for Namyang Aloe - UNIVERA

UNIVERA has been selected as Namyang Aloe's new company name, which corresponds to the changing market environment as well as its new image as a global company. The new name will be introduced to the market on April 5, the anniversary of the company's founding. UNIVERA is a name that was personally developed by the former chairman, the late Yunho Lee.

### 4 생활건강설계사의 새이름 Univera Planner

1월 16일부터 2월 10일 사이 남양알로에 생활건강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총 3,466건의 응모를 받아 사명 변경 이후 사용할 새 설계사의 명칭을 공모했다. 1위 당선작은 서울영업팀 지역 시흥남부대리점의 서경자 생활건강설계사가 출품한 'UP(유피)'이다. UP는 UNIVERA(유니베라)를 의미하는 U(유)와 Planner의 P(피)를 합친 말이다. 이에 따라 1위 당선자인 서경자 설계사에게는 3월 3일 에코넷센터의 시상식에서 42인치 PDP TV가 상품으로 주어졌으며, 소속대리점에는 골드견본 10박스가 부상으로 주어졌다.

### A New Title for Life Health Planners - Univera Planner

From January 16 through February 10, a total of 3,466 entries have been received from Namyang Aloe health planners as part of a contest to select a new title for the planners after the company's renaming. The winning entry is "UP," which stands for Univera Planners. It was submitted by Gyeong-ja Seo, a health planner at Siheung Nambu Agency under the Seoul Sales Team. At the awards ceremony held at ECONET Center on March 3, she was awarded the prize of a 42-inch PDP TV, and ten boxes of Gold sample packs have been presented to her agency.

### 5 CAP2 기업적 발표회 개최



지난 2월 21일 서울 프라자 호텔 그랜드 볼룸은 알로에 신약개발 연구의 실적을 눈으로 확인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CAP2 기 팀장 고려대 박영인 교수를 비롯한 200여명의 내외부 인사가 참여한 자리에서 알로에 신약개발 연구 실적 발표는 물론, 그 성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논문집 출간을 기념하는 기념식도 함께 열렸다.

160년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의 세계적 과학 전문 출판사 '슈프링거(Springer)' 사가 알로에 연구 성과를 높이 평가해 단행본 논문집 <New Perspectives on Aloe>를 출간하였기 때문이다. 슈프링거사는 여러분야의 출판물이 노벨상을 수상한 바 있는 권위있는 출판사로 알로에를 주제로 단행본 영문 연구 논문집을 출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Presentation for the Achievement of CAP Phase 2

On February 21, the Grand Ballroom at Seoul Plaza Hotel was crowded with people who came to verify the achievements of new aloe-based medicine research and development with their own eyes. In the presence of Prof. Young-in Park (Korea University, CAP Phase 2 team leader) and about 200 guests from within and outside of the company, the achievements of aloe new medicine research and development were presented. A ceremony was also held to celebrate the publication of a collection of theses on achievement that have earned global recognition. In praise of the outcome of aloe research, Springer, a prominent German publishing house with a 160-year tradition that specializes in science books, has published a collection of essays titled New Perspectives on Aloe. Springer is a world-renowned publishing house, many of whose publications have been authored by Nobel Prize laureates. This will be its first English-language collection of essays on aloe research.

### 6 남양알로에 생명약학 학술상 시상식



서울대 (약학대학) 심창구 교수가 생명약학 학술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생명약학 학술상은 남양알로에가 신약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생명과학 기초연구 분야 육성 차원에서 2001년부터 남양알로에와 생명약학연구회가 공동 제정한 상이다. 시상식은 2월 10일 현대 성우리조트에서 개최되었으며, 수상자는 생명약학분야 연구발전을 위한 연구지원비를 지원받게 된다.

## Namyang Aloe Life Science & Pharmaceutical Science Awards Ceremony

Prof. Changkoo Shim (College of Pharmacy, SNU) was selected as the winner of the Life Science & Pharmaceutical Science Award. The award was created jointly by Namyang Aloe and the Life Science & Pharmaceutical Research Society in 2001 to support and promote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medicines and encourage basic research in the field of life sciences. The awards ceremony was held at Hyundai Seongwoo Resort on February 10 and the winner was presented with funding for R&D in life sciences and pharmaceuticals.

## 7 생명과학연구소 세브란스 병원 자원봉사 활동



지난 3월 14일 남양알로에 생명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은 세브란스 병원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다. 연구원들은 병원 내 환아들을 위해 생일파티를 열어 주고, 병원학교에서 놀이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생일을 맞은 환아 및 보호자들은 병실로 직접 찾아와서 열어주는 생일파티에 무척 고마워하였다. 또한 모처럼 놀이교실에 참가한 환아들도 매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편, 남양알로에 임직원 봉사팀은 2003년 9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세브란스 병원의 희귀, 난치병 환아들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Life Science Research Center Volunteers at Severance Hospital

On March 14, researchers with the Namyang

Aloe Life Science Research Center took part in volunteer activities at Severance Hospital. The volunteers threw a birthday party for children admitted to the hospital and conducted a fun-filled educational program in the hospital's school. Sick children and their parents were very thankful for the visit to their rooms and the birthday parties.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class also had a good time. The Namyang Aloe Volunteer Team has been participating in volunteer activities for young patients at Severance Hospital suffering from rare and incurable diseases every month since September 2003.

## (주)남양 / Namyang Company

## 8 신제품 개발회의 위원 OASIS사 방문

신제품 개발회의 위원들이 지난 2월 6일부터 9일까지 OASIS사를 방문하여 신제품 개발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5차 신제품 개발회의에서는 Ageless Essential에 대한 품질개선과 안정성, order 의 방향성 및 OASIS사에 매출 증대에 따른 대처 방향, 액상 자동 라인 가동 따른 생산 lead time을 줄이는 방향, 2006년 신제품 건에 대하여 논의했다. 참석자는 CTO 조태형 사장, 신중현 본부장, 안계환 실장, 김성규 팀장, 박연호 주임이다.

## Members of New Product Development Committee Visit Oasis

Members of the New Product Development Committee visited Oasis from February 6 through 9 to discuss new product development plans. The agenda for the 5th new product development meeting included: improving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Ageless Essential, order directions, plans to handle Oasis' growing sales, how to shorten production lead time with the operation of automatic liquefied lines and new product ideas for 2006. The meeting was attended by

Taehyung Cho (CTO), Junghyun Shin (Direction of Headquarters), Gye-hwan Ahn (Division Manager), Seongkyu Kim (Team Leader) and Yeonho Park (Supervisor).

## 9 남양 우수사원 부부동반 중국 현지법인 방문



2005년 종무식에서 표창받은 우수사원들이 부상으로 부부동반 중국현지법인 방문을 지난 2월 21에서 24일까지 실시했다. 남양은 우수사원을 선발하고 표창함으로써 건설적인 경쟁, 사기 진작을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2005년에 많은 직원들이 그 시상 대상이 되었고 그 중 최우수상 박종민 주임, 우수상 정형철 대리, 장려상 신범순 사원이 표창되었다.

## Top Employees Visit the Chinese Subsidiary with their Spouses



The top employees as named at the year-end ceremony in 2005 visited Hainan Aloecorp/Hainan Namyang with their spouses from February 21 through 24. Namyang selects and recognizes high-performing employees to improve productivity by promoting constructive competition and workplace morale. In 2005, a

great many employees were considered as candidates. In the end, first prize went to Supervisor Jongmin Park, second prize to Assistant Manger Hyeongcheol Jeong and third prize to Beom-sun Shin.

##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 10 원어민 전문강사 초빙 교육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유니젠은 임직원의 외국어 활용능력향상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원어민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집중적인 영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에 걸쳐 직원들의 어학능력에 따라 총3개의 반으로 나누어 캐나다 출신의 Hugh Logan와 Christopher Logan 그리고 김보람 선생님 총 3명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이 중 Hugh Logan와 Christofer Logan 두 선생님은父子기간인 것이 흥미롭다. 해외 거래처와의 업무가 많은 유니젠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해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량의 하나라는 인식아래 전임직원이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 Enhancing Global Competitiveness Through English Lessons by Native Speakers

In order to enhance employees' business capabilities by improving foreign language fluency, Unigen Korea has been holding intensive English training sessions taught by native-



speaking professional English teachers since February. The sessions take place twice a week, every Tuesday and Thursday, in three different classes grouped based on the fluency of students. The lecturers are Hugh Logan and Christopher Logan, who are both from Canada, and Boram Kim. In particular, Hugh Logan and Christopher Logan are father and son. Believing that foreign language fluency is indispensable in engaging in overseas business affairs, particularly in Unigen Korea where interactions with foreign partners are often required, every employee is pro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training sessions.

**11 뉴질랜드 생명공학계에 유니젠의 우수성 알려**  
유니젠의 생명과학연구소장인 우성식 총괄상무는 2월 25일~3월4일 사이에 열린 한국-뉴질랜드 생명공학 심포지움에 참석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은 한국과학재단과 뉴질랜드과학재단의 과학기술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행사로 한국-뉴질랜드의 생명공학 발전을 위한 신약 심포지움 및 사이언스 포럼으로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움에서 우성식 총괄상무는 뉴질랜드-한국 Biotechnology form의 발표자로 초청되어 천연물 신약개발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유니젠은 고유의 천연물 신약 및 신물질개발 기술의 우수성을 뉴질랜드 생명공학계에 알리게 되었으며, 한국의 생명과학 기술의 수준을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The Excellence of Unigen Korea Publicized in New Zealand Bioengineering Community**

Seongsik Woo, Director of the Unigen Korea Life Science Research Center, participated in the ROK-New Zealand Bioengineering Symposium February 25-March 4. The symposium was held as a part of a cooperative science and technology project of the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n and the New Zealand Science Foundation. The event consisted of a symposium on new medicines for ROK-New Zealand bioengineering development and a science forum. Dir. Woo was invited as a speaker for the forum, and he provided a presentation on the development of new natural product-based medicines. Through the symposium, Unigen-Korea was able to publicize the excellence of its unique new natural product-based medicines and new substance development technology in the New Zealand bioengineering community. The event was a great chance to build better awareness of the caliber of Korean life science technology.

## 오아시스 / Oasis

### 12 캐나다 몬트리올 본부 공식 출범

수 개월 동안의 적극적인 사전 마케팅 활동을 통해 캐나다 본부가 2006년 3월 1일 공식 출범했다. 2006년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총 세 번의 개시 회의 중 첫 번째 회의가 몬트리올에서 열려 캐나다 시장 진출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는 Derek Hall, Stuart Ochiltree, Stephen Cherniske, Stan Weiss, Rich Razgaitis, Tom Hoolihan 등 ECONET WEST의 주요인사가 참석 설계사, 고객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이 회의에서는 캐나다와 전 세계를 겨냥한 OASIS의 사명과 비전, 가치 그리고 미래 계획이 발표되어 청중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미국법인의 최고 현장 지도자들과 캐나다의 지도자들은 신규 설계사들과 기존 설계사들이 새로운 시장 개척 기회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리더십

훈련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부사장 겸 국제부 본부장인 Stan Weiss 는 “이번은 캐나다 본부 출범으로 북미 지역을 휩쓸고 곧 전 세계의 주요 시장으로 확대할 매우 유리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오아시스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관문이며 이병훈 회장의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라는 우리의 사명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 선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 CANADA FORMALLY LAUNCHED IN MONTREAL

CONGRATULATIONS! Canada was officially launched on March 1st, 2006 after several months of aggressive pre-market activity. The first of three “Kick-off” meetings was held February 17-19, 2006 in Montreal. Derek Hall, Stuart Ochiltree, Stephen Cherniske, Stan Weiss, Rich Razgaitis and ECONET WEST Chief Legal Officer Tom Hoolihan joined the OASIS Associates, Customers and Prospects in celebrating the official opening of the Canadian marketplace. An enthusiastic crowd was treated to a unique business and cultural experience as the OASIS executives revealed the Mission, Vision, Values and Future Plans of the company in Canada and around the world. Top field leaders from the United States and emerging leaders in Canada, provided an exceptional leadership training experience to help new and existing Associates capitalize on the rare and exciting opportunity of opening a new market. “This is a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for Canadians to get in on a ground-floor opportunity that is now sweeping North America and will soon be expanding to other prominent markets around the world.” Stated Stan Weiss, Executive VP & GM, International. “Canada is the gateway to the rest of the OASIS world and is a true pioneer nation in fulfilling Bill Lee’s mission of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 유니젠 미국 / Unigen USA

### 13 유니젠 2006년에 보다 많은 임상 연구 계획 밝혀

유니젠 (Unigen Pharmaceuticals)은 지난 3년간 관절 보호제인 Uninvestin, 체중감량제인 DiAfin, 기억력 강화제인 Lasoperin 등의 복용약과 피부 미백 제품인 AloeWhite, 항염제인 Soliprin 등의 국소 도포제 등 몇 가지 제품의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한 8가지의 임상 실험을 완료하였다. 2006년은 UPI (Unigen Pharmaceuticals Inc.) 내부적으로 개발 독점권뿐 아니라 건강 보조제, 화장품, 약초 등의 산업 분야에서 생리활성 천연식물 추출 성분을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유니젠은 유니젠 이스트와 웨스트에서 각각 진행중인 천연제품 과학연구와 미시판 물질 개발을 통해 6-7개의 예비 제품을 임상 연구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유니젠은 올해 유니젠의 차세대 피부 미백 성분인 UP302, 최근 출시한 성분인 UniBEX™ 과 혈액 순환과 혈중 지질 수준 조절제인 폴리코사놀, 긴장 완화를 도와주는 Seroctin 등의 신제품, 정신 집중과 기억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유니젠 코리아의 UG-III 등에 대한 임상 연구 투자를 확충시킬 계획이다.

## Unigen Pharmaceuticals will pursue more human clinical studies in 2006

In the past three years, Unigen Pharmaceuticals has completed eight human clinical trials for safety and efficacy for a number of products that included products developed for oral consumption involving joint support - Uninvestin, weight management - DiAfin and memory support - Lasoperin; and topical application involving skin whitening - AloeWhite and anti-inflammation - Soliprin. 2006 will be a turning point for UPI in development proprietary, biologically active plant-derived ingredients to the nutraceutical, cosmetic and plant medicine

industries. With the accumulation of natural product scientific research and pipeline product development at both Unigen East and West, Unigen will bring 6-7 product candidates into human clinical studies.

In this year, UPI will significantly increase investment in human clinical studies that will involve Unigen's next generation of skin whitening ingredients - UP302, recently launched ingredients, UniBEX™ and policosanol, that target healthy blood circulation and blood lipid levels, new products such as Seroctin developed by UPI that targets mood and anxiety, and UG-III from Unigen Korea for mental acuity and memory support.

## 14 유니젠 미국 O'Reilly 박사 영입으로 임상연구 강화

유니젠은 보다 활발한 임상 연구를 위해 Terry E. O'Reilly 의학 박사를 영입했다. O'Reilly 박사는 밀워키의 위스콘신 의과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수여 받고 타코마 가정 의학 센터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한 가정 의학 전문의이다. O'Reilly 박사는 IRB 전문의(CIP)로서 올림피아의 서부 연구 윤리 심의 위원회(Western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대외 문제 부부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녀는 또한 규제 심사 및 교육을 담당하고, 의약부 이사, 마케팅 이사를 맡은바 있으며 제 1-4상 임상 연구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O'Reilly 박사는 의학 박사 일 뿐 아니라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한 연구자, 책임 연구원, 기관심의윤리위원회(IRB)의 심사 위원, IRB 소속 외과의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 앞으로의 연구에 많은 기대를 불러모으고 있다.

유니젠은 O'Reilly 박사를 의학 전문의이자 임상 연구 전문가로서 영입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유니젠의 임상 연구에 보다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Unigen USA Recruits Dr. O'Reilly to Push Ahead Clinical Research**

Unigen also brings in the company's first Director of Clinical Research, Terry E. O'Reilly, M.D. to manage the clinical research program. Dr. O'Reilly received her M.D. from the Medical College of Wisconsin in Milwaukee and completed a residency at the Tacoma Family Medicine center to become a Licensed Physician, Board-Certified in Family Practice. Prior to joining Unigen, Dr. O'Reilly has worked as Assistant Vice President, External Affairs, at the Western Institutional Review Board in Olympia with a certification as an IRB Professional (CIP). She also worked as a regulatory reviewer and trainer, medical director, and marketing executive, and has an extensive background in Phase I - IV human clinical studies. Dr. O'Reilly joins Unigen with outstanding credentials, not only as an experienced board-certified physician, but as an experienced researcher, principal investigator, member of an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and an IRB staff physician. With Dr. O'Reilly onboard as a seasoned medical practitioner and clinical trials expert, Unigen is aggressively moving forward with its next series of human clinical trials that are currently underway.

## 에코넷 웨스트 홀딩스 / ECONET, Inc.

## 15 알로콧 인사관리팀 Esmeralda Yniguez 워싱턴 레이시 방문

기업 표준화 과정의 일환으로 알로콧(Aloecorp)의 인사관리 전문가인 Esmeralda Yniguez가 워싱턴 레이시를 방문 인사 트레이팅을 실시했다. Esmeralda는 알로콧(Aloecorp)의 회계 담당자인 Cindy Rosenow로부터 급여 관리 과정, 유니베라(Univera)의 인사이사 Gary Dastrup로부터 새로운 인사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한편, 인사복지 담당자인 Jill Dahlen은 Esmeralda에게 레이시의 주변 지역을 안내해주는 등 유대를 돈독히 했다.

## Aloecorp HR Specialist Esmeralda Yniguez of Lyford, TX Visits Lacey, WA



As part of our ongoing efforts to standardize procedures, Esmeralda Yniguez, an HR specialist with Aloecorp, visited the corporate office in Lacey, Washington in February. During her stay in Lacey, Esmeralda spent time learning payroll processes from Cindy Rosenow, an Aloecorp staff accountant. She also received instruction and guidance in new HR procedures from Gary Dastrup, HR director of Univera. Despite the high volume of information-sharing and learning, Jill Dahlen, a Univera HR benefits coordinator, also managed to squeeze in some time to show Esmeralda the local countryside.

## 유니젠 러시아 / Unigen Russia

## 16 여성의 날 행사

러시아 법인은 3월 8일 여성의 날(러시아 휴일)을 맞이하여 전 날인 3월 7일 여성직원들에게 장미를 선물하고 기념파티를 실시하였다. 러시아는 모계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의 날 행사가 망년회와 신



년으로 이어지는 명절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명절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주요 관공서 및 은행, 경찰서, 기업 등도 3월 7일 오후 3시에 모든 업무를 마감하고 다양한 부대행사를 실시했다.

## Women's Day Event



In celebration of International Women's Day (IWD) (a national holiday, March 8), Unigen Russia presented bouquets of roses to its female employees and held a party to mark the occasion on March 7. As Russia is a matriarchal society, IWD is the most important holiday next to only the year-end and New Year holidays. On March 7, all major government offices, banks, police forces and companies in Russia closed their offices at three o'clock and held various events to celebrate the day.

## 하이난 알로콧 / Hainan Aloecorp

## 17 Hainan Aloecorp/Hainan Namyang ECONET Workshop 개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1일까지 중국 현지 법인 하이난 알로콧은 전직원(관리직/농장직/공장직/경비직)



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제1차 ECONET Workshop을 하이난 알로콥 농장내 대나무집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Workshop에서는 ECONET 개념의 재정립과 ECONET 2단계 전략 공유, 2006년도 사업계획 공유, 평가 및 보상 방식 발표, Servant Leadership 교육 및 신화 창조의 비밀 비디오 상영, 체험 삶의 현장 비디오 등을 같이 시청하였다.

## Hainan Aloecorp/Hainan Namyang ECONET Workshop



With its entire staff present (administrative, plantation, factory, security), Hainan Aloecorp held the first 2006 ECONET Workshop at bamboo cabins on the Hainan Aloecorp plantation from February 27 through March 1. The workshop included the sharing of the redefined ECONET model and ECONET Phase 2 strategy, the sharing of 2006 business plans, the presentation of evaluation and compensation methods, training in Servant Leadership and screenings of Secrets Behind the Creation of a Legend and Experience the Life.

## 18 Hainan Aloecorp / Hainan Namyang 월 교육 실시

중국 현지법인은 2006년부터 매월 셋째주 금요일/토요일을 교육의 날로 정하여 매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셋째주(3월 17일~3월 18일)에 실시된 교육의 날에는 해구 사무소 관리직 및 만녕사무소 관리직, 농장 관리직 등이 참석하여 회계 기본 교육, BSC관점 기본 교육 및 개인 성격 측정, 년간 교육 계획 발표 등을 실시 하였다. 다음달 일정은 4월 28일~4월 29일 예정이다.

## Hainan Aloecorp/Hainan Namyang Holds Monthly Training



Beginning in 2005, Hainan Aloecorp and Hainan Namyang designated every third Friday and Saturday of the month as Training Day and holds monthly training sessions. On Training Day in March (March 17-18), the administrative staff of the Haikou and Wanning offices and the managerial staff of the plantation attended the training, which included basic accounting, BSC basics, personality evaluations and annual training plans. The next session is slated for April 28-29.

**19 Hainan Aloecorp / Hainan Namyang**  
월간 교육의 날과는 별도로 중국 현지법인은 직원들의 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 업무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달부터 실시된 업무 향상 교육은 컴퓨터 기본 교육부터 실시하여 하반기에는 단체 영어 교육 및 각 개인별 업무 능력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In addition to the monthly Training Day, Hainan Aloecorp and Hainan Namyang have begun to invite outside lecturers to offer performance improvement training for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employees' capabilities. This month's performance improvement training included sessions on basic computer skills. Sessions on English skills and individual capability-building will be added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 신입사원 / New Hire



▲ 추명주(남양알로에)/경인지원팀 대리  
Myungjoo Chu (Namyang Aloe)/ Gyeongin Support Team Assistant Manager



▲ 최영재(남양알로에)/교육기획팀 사원  
YoungJae Choi (Namyang Aloe)/ Education Planning Team Staff



▲ 방상학(남양알로에)/전략기획팀 사원  
Sanghak Bang (Namyang Aloe)/ Strategy Planning Team Staff



▲ 강남규(남양알로에)/마케팅기획팀 사원  
Namkyu Kang (Namyang Aloe)/ Marketing Planning Team Staff



▲ 김정희(남양)/생산기술팀 대리  
Jeonghee Kim (Namyang)/ Production Technology Team Assistant Manager



▲ 김정은(남양)/품질혁신팀 사원  
Jeongeun Kim (Namyang)/ Quality Innovation Team Staff



▲ 이성호(남양)/SMC팀 사원  
SungHo Lee(Namyang)/ SMC Team



▲ 김현진(유니젠)/생리활성검증팀 전임연구원  
Hyunjin Kim (Unigen Korea)/ Bioassay Team Staff Researcher



▲ 마르커스 호드넷(오아시스)/물류 담당 사원  
Marcus Hodnett (Oasis)/ Warehouse Staff



▲ 에스피라 험프리스(오아시스)/ CSR  
Esfira Humphries (Oasis)/ CSR



▲ 홀리 소렌센(오아시스)/ CSR  
Hollie Sorensen (Oasis)/ CSR



▲ 글레나 톰슨(오아시스)/ CSR  
Glenna Thompson (Oasis)/ CSR



▲ 호프 오브리(오아시스)/ CSR  
Hope Aubrey (Oasis)/ CSR



▲ 제니퍼 마틴(UPI)/ 회계부 사원  
Jennifer Martin (UPI)/ Staff Acct



▲ 테리 오라일리(UPI)/ 임상 실험 매니저  
Terry O'Reilly (UPI)/ Clinical Trial Manager



▲ 크레스티아니코프 알렉산더 유리에비치(유니젠 러시아)/ 총무팀 사원  
Krestyannikov Alexander Yuryevich (Unigen Russia)/ General Affairs Team Staff

New Hire

## 승진 Promotions



◀ 켄 존스 (알로콧)  
과학 관련 업무 & 연구 개발 상무 ⇒ Chief Science Officer  
Ken Jones (Aloecorp)  
Director of Scientific Affairs, R&D ⇒ Chief Science Officer

## 경조사 소식 /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 (주)남양알로에 / Namyang Aloe

◆ 축하합니다.

1) 2006/3/4 부경영업팀 김효재 대리 - 딸 김려원양의 돌잔치



2) 2006/4/22 교육팀 조인영 주임 - 본인 결혼식 (장소: 월계동 채림웨딩홀 5층 아이리스홀)

◆ Congratulations

1) Hyojae Kim, Assistant Manager in Bugyeong Sales Team, held the first birthday party for his daughter Ryeowon on Mar. 4, 2006

2) Inyoung Cho, Supervisor in Training Team, will get married on April 22, 2006 (Place: Iris Hall, 5th floor, Chaerim Wedding Hall, Wolgye-dong)

### (주)남양 / Namyang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2006/3/5 ERP PI팀 박성완 과장- 배우자 모친상

◆ Please accept our deepest condolences

• The mother-in-law of Seong-wan Park, Manager in ERP PI Team, passed away on Mar 5, 2006

◆ 축하합니다.

• 2006/2/4 품질혁신팀 정형철 대리 - 장남 정현석 군의 돌잔치

◆ Congratulations

• Hyeongcheol Jeong, Assistant Manager in Quality Innovation Team, held the first birthday party for his son Hyeonseok on Feb. 4, 2006



### (주)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 축하합니다.

• 2006/2/18 생리활성 검정팀 김충섭 대리 - 첫 아들 출산

◆ Congratulations

• Congratulations to Chungseob Kim, Assistant Manager in Bioassay Team, on the birth of his eldest son on Feb. 28, 2006



### 힐탑가든 / Hilltop Garden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힐탑 가든 제리 필그림 3세의 아버님이신 제리 필그림 주니어님이 2월 23일 목요일에 타계하셨습니다.

• 어거스틴 레이스와 빈센트 레이스의 누님인 벨리아 레이스 씨가 2월 23일 목요일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 Please accept our deepest condolences

• Jerry Pilgrim Jr. the father of Jerry Pilgrim III (Hilltop Garden) passed away on February 23.

• Belia Reyes, an older sister of Agustin Reyes and Vicente Reyes (Hilltop Garden), passed away on February 23.

### 오아시스 / Oasis

◆ 축하합니다.

1) 에릭 밀러(오아시스, 고객 관리 담당)가 2월 11일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기 이름은 애론 아이켄 입니다

2) 키타 테렐 (오아시스, 물류 책임자)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스카 모세스 테렐 - 1/18 수요일 오후 4시 59분 출생

◆ Congratulations



1) Congratulations to Quita Terrell (Oasis, Distribution Coordinator) for the birth of her new baby boy, Oscar Mosses Terrell, on January 18, 4:59 PM.

2) Congratulations to Eric Miller (Oasis,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for the birth of his son, Aaron Ai' Kane on February 11.



◆ 메스핀 의사되다 !

메스핀이 11월 28일에 북미 수의사 면허 시험 (North American Veterinary Licensing Examination)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일년에 단지 두번 그리고 8시간 동안이나 치뤄지는 이 혹독한 시험을 치뤘난 후 몇 달 동안 결과를 기다린 끝에 시험 통과 소식을 듣게 됐죠. 이렇게 해서 메스핀은 이 디오피아에서 처럼 미국에서도 수의사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에 박수를 보내줍시다.



◆ Mesfin becomes a do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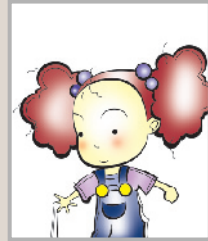
On the 28<sup>th</sup> of November, the North American Veterinary Licensing Examination (NAVLE) was taken by Mesfin. This grueling exam is only given twice a year and lasts for 8 hours. After months of waiting for the results, he has passed. This makes him a licensed veterinarian in U.S.A. as he was in Ethiopia. Let's applaud his grand achievement.

# Happy Birthday

남양 / Namyang



◆ (4/1) 서동미  
Dongmi Seo



◆ (4/2) 송미선  
Misun Song



◆ (4/2) 방창규  
Changgeu Bang



◆ (4/3) 이병훈  
ByoungHoon Lee



◆ (4/4) 윤성원  
Sungwon Yoon



◆ (4/6) 김윤자  
Yunja Kim



◆ (4/9) 심호영  
John Sim



◆ (4/10) 유홍석  
Hong Suk You



◆ (4/11) 권혁민  
Hyeokmin Gwon



◆ (4/12) 차경애  
Kyungae Cha



◆ (4/15) 김미영  
Miyoung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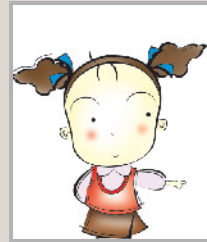
◆ (4/16) 박순정  
SoonJung Park



◆ (4/22) 박정순  
Jungsoo Park



◆ (4/23) 오태은  
Taeun Oh



◆ (4/24) 김영은  
Youngeun Kim



◆ (4/24) 신부희  
Boohee Shin



◆ (4/26) 김온수  
Onsoo Kim



◆ (4/29) 박순주  
Sunjoo Park



◆ (4/29) 김성규  
Sunggyu Kim



◆ (4/30) 신춘하  
ChounHa Shin



◆ (4/30) 윤상기  
Sangki Y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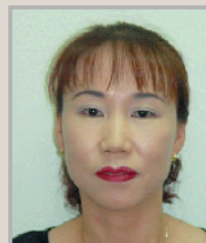
◆ (4/30) 이옥희  
Ockhee Lee



◆ (5/1) 황오하  
OH Hwang



◆ (5/3) 오경아  
KyoungAh Oh



◆ (5/5) 이태순  
TaeSoon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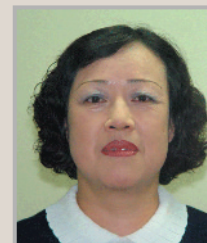
◆ (5/10) 김용재  
Youngeun Kim



◆ (5/14) 박상순  
SangSoon Park



◆ (5/23) 정봉수  
Bongsoo J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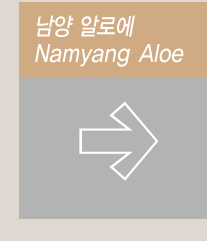
◆ (5/24) 노금례  
Geumrye Noh



◆ (5/25) 김은아  
Eunah Kim



◆ (5/26) 허영주  
Youngjoo Heo



남양 알로에  
Namyang Aloe



◆ (4/2) 이진우  
Jinwoo Lee



◆ (4/4) 김희수  
Heesoo Kim



◆ (4/5) 김윤식  
Yoonsik Kim



◆ (4/8) 김봉호  
Bongho Kim



◆ (4/18) 옥민상  
Minsang Ock



◆ (4/28) 조은석  
Eunsuk C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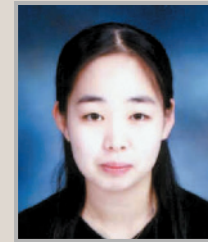
◆ (4/29) 변인숙  
Ihnsook Byun



◆ (4/30) 정현정  
Hyunjung J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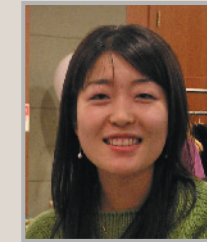
◆ (5/9) 정찬수  
Chansoo Chung



◆ (5/11) 최윤선  
Yoonsun Choi



◆ (5/14) 진찬숙  
Chansook Jin



◆ (5/13) 신은미  
Eunme Shin



◆ (5/14) 강창성  
Changsung Kang



◆ (5/19) 신 흥  
Heung Shin



◆ (5/22) 김홍경  
Hunkyoung Kim



유니젠 한국  
Unigen Korea



◆ (4/6) 이정민  
Jungmin Lee



◆ (4/19) 이동영  
Dongyoung Lee



◆ (4/20) 조태형  
Taehyung Jo



◆ (4/22) 김현진  
Hyunjin Kim



◆ (5/23) 김종한  
JongHan Kim



◆ (5/27) 차경섭  
KyoungSub Cha



◆ (5/27) 박은혜  
Eunhye Park



알로콧  
Aloecorp



◆ (4/3) 엘리야브 델 엔젤 솔리스  
Eliab del Angel Solis



◆ (4/5) 호세 라미로 푸엔테스 자케즈  
Jose Ramiro Puentes Jaquez



◆ (4/6) 제이 홀리오 나바레스 레이자  
J Julio Narvaez Leija



◆ (4/7)  
카멜로 모랄레스 아빌라  
Carmelo Morales Avila



◆ (4/7)  
헤밀로 카스틸로 레데즈마  
Hermilo CastilloLedezma



◆ (4/14)  
제이미 오르테가 루나  
Jaime Ortega Lu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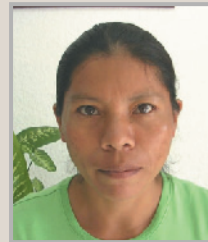
◆ (4/14)  
후안 마르티네즈 토레스  
Juan Martinez Torres



◆ (4/14)  
저스티노 소토 지미네즈  
Justino Soto Jimenez



◆ (4/15)  
산 후아나 레오스  
San Juana Le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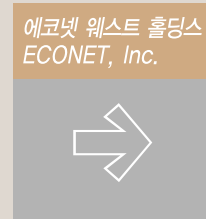
◆ (5/25)  
로사 알바라도 헤르난데즈  
Rosa Alvarado Hernandez



◆ (5/29)  
앨버트 아담미  
Albert Ad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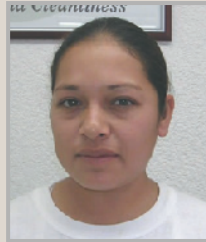
◆ (4/29)  
사비노 곤잘레즈  
Sabino Gonzalez



◆ (4/26) 김석원  
Greg Kim



◆ (4/16)  
마리아 멘도자  
Maria Mendoza



◆ (4/19) 마리아 레베카  
로드구에즈 게라  
Maria Rebeca  
Rodriguez Guerra



◆ (4/20)  
베르나르도 소토 헤레라  
Bernardino Soto Herr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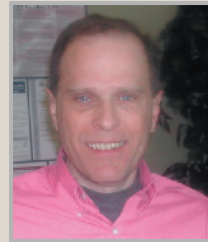
◆ (4/20)  
데이비스 카테나스 멘도자  
David Cardenas Mendoza



◆ (4/21) 글로리아  
네티시아 메드라노 서반테스  
Gloria Leticia Medrano  
Cervantes



◆ (4/21)  
이본느 터루비아테스  
Yvonne Turrubi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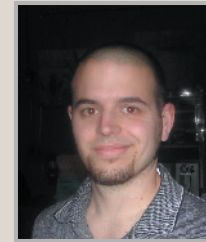
◆ (5/10)  
리차드 코난트  
Richard Conant



◆ (5/31) 데렉홀  
Derek Hall



◆ (4/9)  
실비아 브리식  
Sylvia Brc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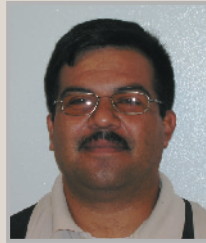
◆ (4/16)  
그레고리 가르딘  
Gregory Gardin



◆ (4/17)  
멜리사 디아즈  
Melissa Diaz



◆ (4/22)  
알레잔드로 모랄레스 아빌라  
Alejandro Morales Avila



◆ (4/22)  
후안 미렐레스  
Juan Mireles



◆ (4/27) 호세 펠리시아노  
플로레스 리베라  
Jose Feliciano Flores  
Rivera



◆ (4/27)  
마르셀리노 라미레스 크루즈  
Marcelino Ramirez Cru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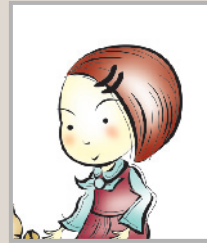
◆ (4/28)  
호텐시아 헤르난데즈 살라스  
Hortencia Hernandez  
Sal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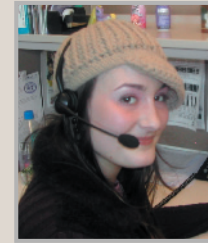
◆ (4/29)  
오렐리오 빌레라 멘데즈  
Aurelio Villela Mendez



◆ (4/20) 존 밀러  
John Miller



◆ (4/30)  
리즈 호제스  
Liz Hoges



◆ (5/2)  
조다나 사발라  
Jordana Saballa



◆ (5/9)  
홀리 소렌슨  
Hollie Sorensen



◆ (5/12)  
첼시아 커크우드  
Chelsea Kirkwood



◆ (5/16)  
데니엘 베즈  
Daniel Betz



◆ (4/29) 줄리안 페드리코  
마시아스 살라자르  
Julian Federico Macias  
Salazar



◆ (4/30)  
후고 헤르난데즈 델 엔젤  
Hugo Hernandez Del Angel



◆ (4/30)  
레후지오 로레도 페레스  
Refugio Loredo Pere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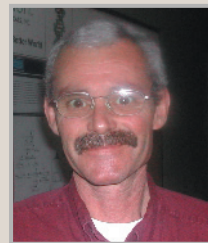
◆ (5/3) 호세 크루즈  
로드리구에즈 몬테스  
Jose Cruz Rodriguez  
Montes



◆ (5/6)  
파스쿠알 트레조 오스티긴  
Pascual Trejo Oztigu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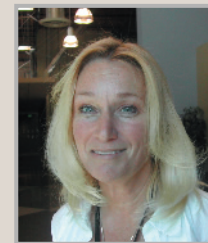
◆ (5/7)  
미구엘 엔젤 오르타 가르시아  
Miguel Angel Orta Garcia



◆ (5/21)  
랜드 그로버  
Randy Grover



◆ (5/24)  
데브 그로버  
Deb Grover



◆ (5/25)  
안드레아 킬몬  
Andrea Tillmon



◆ (4/1)  
하우만 바쉬리  
Houman Bashiri



◆ (4/3)  
캐롤린 돌란  
Carolyn Doolan



◆ (5/8) 호세 프구덴시오  
로드리구에즈 곤잘레즈  
Jose Prudencio Rodriguez  
Gonzalez



◆ (5/19) 클라우디아  
바스케즈 로드리구에즈  
Claudia Vazquez  
Rodrigue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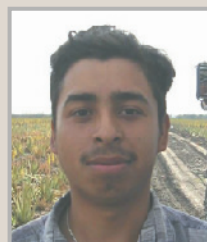
◆ (5/20)  
하비에 페이다 가르시아  
Javier Pineda Garc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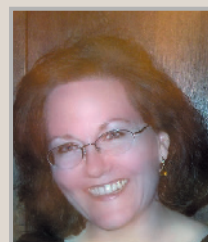
◆ (5/21)  
피터 헤퍼만  
Peter Hafermann



◆ (5/21)  
로베르토 올모스 디 레온  
Roberto Olmos De L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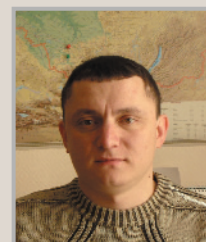
◆ (5/25)  
리카르도 로페즈 컴페안  
Ricardo Lopez Compean



◆ (5/19)  
캐시 마크햄  
Kathy Markham



◆ (5/20)  
유안 자오  
Yuan Zhao



◆ (4/5) 리트비노브  
올렉 알렉산드로비치  
Litvinov Oleg Alexandrovich



◆ (5/10) 송윤섭  
YoonSup Song

## 4월호 퀴즈 & 2006 2월호 당첨자 발표

퀴즈정답 - 1. (2월/작은 사랑의 실천, 3월/작은 사랑에 대한 보답하기, 4월/꿈의 대화), 2. (30주년)

- ▶ 지난호 퀴즈 당첨자 (남양 931) : (주)남양알로에 마케팅기획팀 조성훈 대리 가족 유혜원씨, (주)남양 생산기술팀 최시옥, 밥 풀틴 에코넷 웨스트 홀딩스(구 유니베라) 행정담당 지역봉사 코디네이터
- ▶ 지난 2월호 베스트 원고상 ! (상금으로 200,000원(\$200)이 수여됩니다.)  
*힐탑가든 제리필그림 부사장 - 냉해는 시련이 아니라 축복이었다.*  
시련을 이겨낼수 있게한 사장님의 경영철학이 감동적이라는 많은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2006년 6월호에는 자유사진 응모전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최우수상 : 100,000원 상품권 (1명), • 우수상 : 50,000원 상품권 (2명)

### 4월호 ECONET WAY 퀴즈

고 이연호 회장님께서 1987년 노회 신년사에서 직원들에게 당부하셨던 두 가지 말씀은 무엇이였을까요?  
구체적으로 서술을 잘 해주신 분 중 추천하여 5만원(\$50)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 ▶ 응모하실곳 : kaoh@univera.com

### April Quiz and Winners of the February Quiz

Answers to the February 2006 quiz :

- 1) February: Practicing a little love, March: Returning a little love, April: Sharing dreams  
2) 30<sup>th</sup> anniversary

- ▶ Winners of the February Quiz (Winners of Namyang 931)
  - 1) Haewon Yoo/ a relative of Seonghun Cho/ Assistant Manager/ Marketing Planning Team/ Namyang Aloe
  - 2) Siwook Choi, Production Technology Team, Namyang
  - 3) Barb E. Fulton, Dept. of Law, Strategy & Administration, ECONET, Inc. (Formerly Univera)

- ▶ Winner of the February Best Article Contest! (A cash prize of 200,000 won (\$200) will be awarded )

*Jerry Pilgrim, VP of Hilltop Garden - They are our Family.*

Many expressed that the CEO' s business philosophy that motivated people to overcome the ordeal was very touching.  
We appreciate your participation.

- ▶ For the June 2006 photo contest, we have not set a specific theme. Please send in any pictures you'd like to share with other ECONETIANS. We appreciate your participation.

- First Prize: A 100,000-won gift certificate (1 winner)
- Second Prize: A 50,000-won gift certificate (2 winners)

### Quiz for the April issue of ECONET Way

The late Chairman Yunho Lee made a couple of requests of the staff in his New Year's Message published in Nohoe (the Namyang Aloe company newsletter) in 1987. What did he ask of them?

Answers that best describe his requests in detail will be selected and the writers of the winning answers will each be presented with a gift certificate worth 50,000 won (\$50).

- ▶ Please send answers via e-mail (kaoh@univera.com)



*We strongly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by all members of the ECONET family.*

### 함께 만드는 ECONET Way

에코네시안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감명깊게 읽은 책, 기억에 남는 공연, 좋은 추억이 된 여행, 자신만의 에세이 등  
자유롭고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원고를 보내주세요. ⇨ [kaoh@univera.com](mailto:kaoh@univera.com)

1. 이번호에서 가장 흥미롭고 유익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2. '에코넷웨이' 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인가요?
3. '에코넷웨이' 에 전하고 싶은 의견이나 제안을 적어 주십시오.
4. 참여하고 싶은 코너나 추천하고 싶은 사우를 적어주세요.

### Let's join the ECONET Way

*ECONET Way is awaiting your participation.*

*Please contribute articles on any topic, such as your favorite book,  
an unforgettable performance, a memorable trip or a personal essay.*

*Your contribution would be deeply appreciated. ⇨ [SeanL@oasisnetwork.com](mailto:SeanL@oasisnetwork.com)*

1. Which article did you find most interesting or useful in this month's issue?
2. What would you like to read in future issues of ECONET Way?
3. Please submit any comments or suggestions you have for ECONET Way.
4. Kindly suggest a section to which you'd like to contribute or a colleague you'd like to recommend.



## 에코넷웨이에 바란다 / Story Suggestions for ECONET Way

### 에코네시안 여러분!

작은소식이라도 각 사의 기자분들께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기사화 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Suggestions for ECONET Way!”

*Please e-mail the latest news to your company’s reporter listed below. No matter how trivial the item, your updates will be very helpful in assembling the next issue. We appreciate your participation.*

#### (주)남양 / Namyang Company

에코넷기업본부 오경아 대리/ 편집장 kaoh@univera.com  
KyoungAh Oh, Assistant Manager, ECONET Corporate Conter, / Korea / Editor-in-Chief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 최순미 대리/ 기자 smchoi@namyangglobal.com  
Sunmi Choi, Managemnet Support Office / Korea / Reporter

생산본부 생산기술팀 전영숙/ 기자 et2388@namyangglobal.com  
Youngsuk Jun, Production Technology Team / Korea / Reporter

#### (주)남양알로에 / Namyang Aloe Inc.

마케팅본부 고객지원팀 박정아 팀장/ 기자 aloever@namyangaloe.com  
Jeong Ah Park, Customer satisfaction Team Manager, Marketing, / Korea / Reporter

교육부 교육기획팀 송은주 대리/ 기자 seunjoo@daum.net  
Natalie Song, Assistant Manager / Education Planning Team/Education devision / Korea

#### (주)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마케팅개발관리 최재영 차장/ 기자 jychoi@unigen.net  
JaeYoung Choi, Manager, Marketing, Unigen,Inc

경영지원실 재정인사 장미라/ 기자 happycode@unigen.net  
Mira Jang, Staff, Administration , Unigen,Inc

#### 미국 / USA

알로콧 생산관리 김수겸 이사/ 기자 joseph@aloecorp.com  
Joseph Kim, Director of Aloecorp Operations

에코넷 웨스트 홀딩스(구 유니베라) 손병일 차장/ 기자 ByungS@econetwest.com  
Byung Sohn, Financial Services Manager / ECONET, Inc. (Formerly Univera) / Reporter

유니젠 미국 신상현 과장/ 기자 Sangs@upil.com  
Sang H. Shin, Manager, UPI / Reporter

에코넷 웨스트 홀딩스(구 유니베라) 이세현/ 기자 SeanL@oasisnetwork.com  
Sean Lee, Executive Administrative Assistant, ECONET, Inc. (Formerly Univera) / Reporter

#### 중국 하이난 알로콧 / Hainan Aloecorp

하이난 알로콧 & 남양 총경리 비서 송운섭/ 기자 yoonsup21@hanmail.net  
Yoonsup Song, Secretary of Hainan Aloecorp & Namyang / China / Reporter

#### 유니젠 러시아 / Unigen-Russia

유니젠 러시아 허영문/ 기자 ympost@hanmail.net  
Youngmoon Heo, Assistant Manager, UNIGEN-RUSSIA Company / Russia



## 에코넷 가족 / ECONET Family



#### (주)남양 / Namyang Company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2  
☎ : 365-850  
370-92 Yongjeong-Ri, Chopyong-Myon,  
Chinchon-Kun, Chungbuk, 365-850, Korea  
Tel : (043)532-5144, Fax : (043)532-5328  
www.namyangglobal.com

#### (주)남양알로에 / Namyang Aloe Inc.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 : 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 ga,  
Sungdong- gu, Seoul, Korea  
Tel : (02)460-8865, Fax :(02)467-9988  
www.namyangaloe.com

#### (주)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충남 천안시 병천면 송정리 200-1번지  
☎ : 330-863  
#200-1, Songjung-Ri, Byeongcheon-Myeon,  
Cheonan-Si, Chungnam 330-863, Korea  
Tel : (041)529-1510, Fax : (041)529-1599  
www.unigen.net

#### ECONET, Inc. (Formerly Univera)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8300, Fax : (360)413-9185

#### 오아시스 / Oasis Lifesciences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7500, Fax : (360)413-9150  
www.oasislifesciences.com

#### 미국 유니젠 / Unigen Phmaceuticl inc.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8200, Fax : (360)413-9135  
www.unigenpharma.com

#### 알로콧(생산) / Aloecorp Inc (Production)

61/2 Miles North of La Villa On FM 491  
Lyford, Texas 78569 U.S.A  
Tel : (956) 262-2176 Fax : 956-262-8113  
www.aloecorp.com

#### 알로콧(영업) / Aloecorp Inc (Sales)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7400, Fax : (360)413-5036  
www.aloecorp.com

#### 중국 하이난 알로콧 / Hainan Aloecorp

Room #1108, Haikou International Commercial Centre, No.38,  
Datong Road, Haikou, Hainan, China - Zip Code : 570102  
Tel : (898)-6674-5400, Fax : (898)6674-3400

#### 유니젠 러시아 / Unigen-Russia

3rd Floor, Aleutuskaya 14str.  
Bladivostok, Primory, Russia  
Tel : 7-4232-30-10-66, Fax : 7-4232-30-10-64

**ECONET**  
*since 1976*